


Beautiful Sunday

461

시나리오, 감독 : 진 
제작 : (주)시네라인

2006.03.20(1C)

<등 장 인 물>

최형사 30대 중반의 강력반 형사. 무뚝뚝하고 거칠지만 사고당한 부인 앞에서는 여린 모습을 보인다. 죄의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비운의 캐릭터.

민우 20대 후반의 고시생. 자폐적이며,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불안정한 캐릭터.

수연 민우가 짝사랑하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

조상태 40대 초반의 조직 보스. 다혈질의 악랄한 캐릭터.

이기철 40대 초반의 조직 보스. 음흉하여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아비한 캐릭터.

유창원 30대 초반. 상태의 부하. 비열하고 약삭빠른 캐릭터.

김현석 20대 중반. 여자와 마약에 빠진 기철의 부하.

강력반장 50대 초반의 강력반 반장. 강력반의 아버지격인 인물.

김형사 최형사를 따르는 착한 후배.

석재 한때 강력반 형사. 마약에 젖어 옷을 벗고 현재는 작은 꼬치집을 운영하며 살아감.

형사1

형사2

형사3

감찰반 형사1

감찰반 형사2

조형사

순경

용준

예림 수연의 친구

창녀

최형사 엄마, 아빠

고시원 아줌마

그 외...

기철부하1,상태부하1,똥마니1,2, 중국인1,2

여대생, 원무과 여직원, 동사무소 여직원, 촌노, 의사, 수위, 신도, 고시생, 수연남자친구,

부동산주인, 빼끼, 수인, 간호사1,2,3, 입주자, 수녀

어린 시절 최형사

#1. Opening Scene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암전상태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우 V.O : 1시간 안에.....당신은 나를 죽이게 될 꺼야!!!!

(Title Scene은 CG와 특수효과 몽타주 장면으로 보여 진다.)

Fade In 되면 눈알이 튀어 나올 듯 이글거리는 최형사의 한쪽 눈이 Close Up으로 보이고, 눈가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카메라가 서서히 빠지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최형사가 민우에게 권총을 겨누며 서 있는 모습이 보여 지고....

배경이 되는 공간의 실체도 드러나는데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임을 알 수 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따라 360도 회전하고.....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손. 팡!!!! Fade Out.

- TITLE -

Opening Credit Start

#2. Title scene 개인 병실, 성당/ 낮, 밤

(병실 안/ 낮)

거즈에 알코올을 적시는 남자의 손이 화면 가득 보여 지고, 돌아누운 여자의 알몸.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거즈로 여자의 몸을 닦는 남자의 손.

여자의 어깨, 팔꿈치, 엉덩이 윗부분이 욕창으로 거무스름하게 변해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여자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손길.

몽고반점 주위를 닦던 최형사의 손길이 멈추고.....눈물 한 방울이 몸 위로 똑 떨어진다.

(성당 입구/ 밤)

부슬부슬 비 내리는 성당 입구. 한쪽에 세워져 있는 성모상으로 다가가면....

술에 만취한 최형사가 성모상 하단에 머리를 박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성당 안쪽에서 신도 3명이 달려 나와 최형사를 말린다.

신도 : (최형사를 억지로 끌어내며) 형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형사 : (신도들의 손을 뿌리치며) 이거 놔!...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당신들이 원데...기도도 못하게 해!!! 성당이 이래도 되는 거야!

신도들이 최형사를 또다시 잡아끌며 성당 밖으로 내몬다.
이때 한차례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몰아치고.....
빛물이 흘러내리는 성모상의 얼굴이 Close up으로 보여 진다.

Opening Credit End

#3. 부딪가/ 밤

(해변 도로)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달리는 차 안. 차창 밖으로 내려다보이는 부딪가.
산을 끼고 달려 내려오는 차. 최형사가 트로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다.

(부딪가)

물안개 자욱한 어둠속 부딪가 한켠에 헤드라이트를 끈 차가 조용히 정차한다.
최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계를 본 후 밖으로 나간다.
부두 한쪽에 주차된 두 대의 차량 안에 상태의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다.
정박된 배들 사이를 넘어 중국 선박으로 몰래 잠입하는 최형사.
차 안에 있던 상태부하 한명이 차에서 내려 가래침을 뱉은 후 주위를 둘러본다.

(선실복도 안)

총을 확인하며 선실 문 쪽으로 다가가는 최형사.

(선실 안)

창원을 주시하는 상태와 중국인1,2.
마약을 손가락으로 찍어 윗니를 훑치며, 혀로 핏는 창원.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최형사.

최형사 : 좋은 일이면 나도 한 몫 끼자!

중국인1: nimenganma? (이 새끼 뭐야?)

중국인2: nimenshibushipianwomen? (이 새끼들 우릴 속인 거 아냐?)

최형사 : 뭐라고 지껄이는 거냐?

상태 : (테이블을 최형사에게 밀치며) 야! 튀어!!

황당해하는 중국인 2명과 창원에게 총으로 위협하며 상태를 덮치는 사이.....
창원과 중국인 2명은 도망친다.

좁은 선실에서 격렬하게 싸우며 옆치락뒤치락 거칠게 반항하는 상태.
선실바닥 지하 창고 틈 사이로 상태와 최형사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

(선실복도 안)

선실 복도로 도망치는 상태를 따라 잡는 최형사. 다시 격투가 벌어지고....

(감판 위)

감판 위로 나온 창원과 중국인1,2.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창원이 중국인1,2와 함께 옆 선박으로 도망간다.

(선실 안)

선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마약과 돈다발.

선실 바닥 문이 열리면 잠수복을 입고 나타나는 현석.

열개의 마약봉지 중 하나만 남기고 돈과 마약을 챙긴다.

(부둣가)

대기하고 있던 상태의 부하들도 오합지졸로 도망가다가 경찰들에게 포위된다.

(수면 위)

레귤레이터를 입에 물고 입수하는 현석.

중국선박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는 해경순시선.

(감판 위)

감판위로 도망쳐 나온 상태를 덮치는 최형사. 다시 혈투가 벌어지고, 상태를 돌려세워 주먹으로 한대 갈기는 최형사. 상태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다.

(부둣가)

상태의 머리를 잡고 걸어오는 최형사를 발견하고 멈추는 패트롤카. 김형사가 급히 내린다.

최형사 : (통명스럽게) 레카차 불렀으면 벌써 왔다갔겠다!!!!
가서 뒤처리나 해!!

#4. 경찰서 강력반 복도, 사무실 / 낮

(복도 안)

우편물을 우편함에 꽂고 있는 여경.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강력반장이 여경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강력반장 : 김순경, 우리반 꺼는 쥐. 내가 줄게.

여경 : 네, 반장님.

(강력반 사무실 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력반장.

강력반장 : 야, 보너스 나왔다!

강력반장이 자리를 이동하며 형사들에게 카드 명세서를 나눠준다.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이고 궁시렁 거리는 형사들.
형사1에게 카드명세서를 주고 지나가는 강력반장.

형사1 V.O : 돌려막기도 이제 지친다, 지쳐!

일을 하는 형사2에게 카드 명세서를 주고 지나가는 강력반장.
카드명세서를 보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넣는 형사2.
빈 책상 두 세군데 위에 카드 명세서를 놓고 최형사에게 다가가는 강력반장.
강력반장 최형사 책상 위에 통신요금 명세서를 내려놓고 지나간다.

명세서를 옆으로 밀어내고, 조서를 내려놓는 최형사.
진술 조서를 살펴보는 상태. 마약이 200g으로 표기되어 있다.
의아하고 뜨악한 눈길로 최형사를 쳐다보는 상태.

최형사 : (주위를 둘러본 다음) 왜? 뭐 잘못 된 거 있냐?
상태 : (무슨 말을 하려다 어이없는 비웃음을 날리며)
따지자니 형량이 커지겠고, 넘어가자니 허파가 뒤집어지고.....
생각해 주는 거는 좃나게 고마운데....씨팔 이러면 안되지?

최형사가 상태의 머리를 잡고 책상에 박아 버린다.
고개를 드는 상태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내린다.

최형사 : 빨리 끝내자!!

상태가 어쩔 수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인장이 아니라 코피를 찍어 최형사에게 들어 보인 후
진술서에 지장을 찍는다. 비릿하게 웃는 상태의 얼굴.

#5. 고급 음식점 안/ 밤

고급 음식점 룸 안에 기철과 최형사가 앉아있고, 테이블엔 고급 요리가 놓여져 있다.
테이블 위에 가방 하나를 내려놓는 현석. 지퍼를 열면 돈이 가득하다.

기철 : 2Kg! 상태새끼! 판 한 번 크게 벌렸던데.....
최형사 : (다장을 받듯 기철을 노려보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기철 : 수고했어. 최형사 사정 다 아니까! 받아줘!....
(비아냥거리며) 최형사 마음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갈등과 모멸감 어린 시선으로 돈다발을 쳐다보는 최형사.
이내 단념하고 돈다발이 든 가방을 들고 뒤돌아서 음식점 룸을 나가며....
이름 악무는 최형사.

최형사 : 개새끼!

기철 옆에 있던 현석이 발끈하자, 현석을 저지하는 기철.

#6. 몽타주/ 밤, 낮

(나이트클럽 안/ 밤)

사이키 조명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스테이지. 젊은 남녀들이 정신없이 춤을 춘다.
현석과 현석부하1,2가 스테이지 쪽을 바라보며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온다.
서빙접시를 들고 테이블 사이들을 바쁘게 오가는 웨이터1.
나이트클럽 한쪽 테이블에서 현석과 현석부하들을 주시하는 창원.

(나이트클럽 주방 옆 비상통로/ 밤)

현석부하1과 웨이터1이 마약과 돈을 교환한다.

(밀실 안/ 밤)

전자저울로 마약의 무게를 재는 현석부하1.
작은 비닐팩에 소량의 마약을 나눠 담는 현석부하1의 손.

(나이트클럽 안/ 밤)

웨이터1이 셋팅 된 테이블 위에 있는 스탠드 밑에 마약봉지를 놓고 사라지면 이를 지켜보
고 있던 창원의 모습이 보인다.

룸 안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 있는 현석과 여자1.

웨이터1이 들어와 주사기가 든 쓰레기통을 다른 쓰레기통으로 덮어 들고 조용히 룸 안을
빠져나간다.

(밀실 안/ 밤)

담배를 입에 물고, 지폐 계수기로 돈을 세고 있는 현석.

(교도소 감방 안/ 낮)

감방문이 닫히면 이를 악물고 서있는 상태.

상태 : 인간 조상태를 개 좃으로 봤다 이거지....좃같은 새끼!!!

#7. 바닷가 방파제/ 낮

방파제 한쪽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는 최형사와 기철.

기철이 낚시 바늘을 갈아 끼우며 낚시 줄을, 낚시 도구용 생선회칼로 자른다.

기철 : 제수씨는 좀 어때?

최형사 : 니 걱정이냐 해라!

기철 : 상태새끼! 몇 년 쪽 썩겠구만....(이때 기철의 낚시에 물고기가 걸려든다)
또 걸렸다! 오늘 손맛 한번 제대로 보는데!!!

기철이 낚시에 걸려 든 물고기를 그물 속에 집어넣는다.
멀리 방파제 앞을 지나가는 작은 어선.

최형사 : 나, 니 손맛 구경하러 온 거 아니다!

기철 : 짹짹한 껌이 하나 더 있는데.....어때?

최형사 :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친절하게 기철의 입에 물려주며)
내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이젠 그만 좀 하자.

기철의 입에 물려 있는 담배를 뱉어 바닥에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최형사.
어선 안에서 최형사와 기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창원.

#8. 목욕탕 입구/ 낮

목욕탕 입구 카운터에서 계산을 치르는 민우.
여탕 문이 열리며, 축축이 젖은 긴 생머리의 수연이 나온다.
민우의 뒤를 지나가며, 카운터의 아줌마에게 인사를 한다.

수연 : (목례를 하며) 수고하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수연의 뒷모습을 쫓는 민우.
하늘을 올려다보는 수연, 표정이 싱그럽다.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껴 뒤를 돌아보는 수연.
카운터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수연이 다시 길을 걸으면, 목욕탕 문 뒤에서 나와 수연을 지켜보는 민우의 모습.

#9. 고시촌 식당, 언덕/ 밤

(고시촌 산동네)

고시촌 산동네가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잠겨있다.

(식당 안)

1층 식당, 6개의 테이블이 들어 찬 공간은 식사중인 고시생들로 꽉 차 있다.
뒤늦게 내려온 민우... 자리가 없자 짜증이 난 얼굴로 대문 바깥으로 나온다.

(고시촌 언덕)

대문 처마에 붙어서 비를 피하며, 담배를 꺼내 피우는 민우.
담배연기가 어스름한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간다.

고시촌이 위치한 언덕 아래로 이어진 계단 길 밑에서 흰색원피스 차림의 수연이
비를 맞으며 뛰어 올라온다. 담배를 피우면서 수연을 지켜보는 민우.
몸을 대문 안쪽으로 숨긴다.

한쪽 손에는 식료품이 가득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한쪽 손으로는 비를 피하려는 듯
이마 앞으로 치켜든 채 수연이 민우 앞으로 뛰어간다.

무심코 수연의 얼굴을 보는 민우.
수채화에서 튀어 나온듯한 청순한 인상의 수연.
계단을 뛰어 오를 때마다 어깨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카락이 찰랑인다.

수연이 막 민우 앞을 지날 때...
수연이 든 검은 봉지에서 사과 한 알이 빠져나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다.
사과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계단을 오르는 수연.
민우가 사과를 주워 수연을 돌아 봤을 땐 이미 수연은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다.
주워 든 사과를 보는 민우. 담배는 비에 젖어 꺼져 있다.

#10. 민우의 방, 고시촌 언덕/ 낮, 밤

(민우방 안/ 낮)

책상위에는 스탠드가 켜져 있고, 책이 펴있다.
책상 한켠에 놓여 있는 사과.
책상에 엮드려 자고 있던 민우. 알람시계 소리에 깬다.
후다닥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는 민우.

(고시촌 언덕 / 낮, 밤)

민우의 방에서 내려다 본 계단.
출근하는 수연이 고시원 계단을 내려간다. dissolve
퇴근하는 수연이 고시원 계단을 올라온다.

(민우방 안/ 밤)

창밖으로 수연을 내려다보던 민우가 돌아서서 빙그레 미소 짓는다.

#11. 고시촌 식당, 방/ 낮

(고시촌 식당 안)

늦은 점심을 혼자서 먹는 민우.

혼자서 밥 먹다 말고 빙긋이 웃는다. 설거지를 하던 고시촌아주머니 민우를 보며....

고시촌 아주머니 : 요즘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민우 : 네?

고시촌 아주머니 : 정신 차려!!! 내가 이 짓거리만 10년이야!

총각 얼굴만 보면 무슨 생각 하는지 다 알아!

그럴 거면 일치감치 짐 싸들고 나가!!! 뭐 하러 이 고생을 해?

멋쩍어진 민우가 조용히 식당을 나간다.

(민우방 안)

방으로 들어오는 민우. 옆방의 고시생이 사과를 한입 물며....

고시생 : 야! 나 이 책 빌려간다.

민우가 대답 대신 책상 위를 살펴보고 사과가 없자,
화가 난 얼굴로 찌려보며 고시생의 손에 들린 사과를 뺏는다.

고시생 : 야! 왜 그래? 사과 하나 가지고....

민우 : 꺼져!!!(고시생을 방 밖으로 쫓아낸다)

고시생 : 아이!....치사하게.....알았어! 내 사줄게....

민우 : 내 물건에 손대지 마!!!(문을 꽂! 닫는다)

민우가 책상에 앉아 한 줄로 깎은 사과껍질을 사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투명테이프로 붙이고 있다. 갑자기 사과 껍질을 벽에다 던지는 민우.

#12. 먹자거리/ 밤

(먹자 거리)

먹자거리를 무심히 지나는 민우.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여자들을 심드렁하게 힐끗 쳐다본 후 걸어온다.

맞은편 인파 속에서 걸어오고 있는 수연. 민우가 수연을 발견하고, 눈으로 쫓는다.

수연에게 말을 걸어보기 위해 결심한 듯 수연을 쫓아가는 민우.

바쁜 걸음으로 코너를 돌아 할매 파전가게로 들어가는 수연.

(할매 파전가게 안)

소주잔을 들이키고 테이블에 내려놓는 민우의 표정이 괴롭다.

남자친구와 다정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수연.

냅킨을 뽑아 남자친구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는 수연.

이를 수연의 뒤편 테이블에서 지켜보며, 잔을 들이키는 민우.

민우의 시선이 자꾸만 수연 앞에 앉은 남자친구에게로 향하고 눈을 마주친다.

수연의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근슬쩍 수연의 옆으로 앉는다.
수연에게 컷속말을 하며, 뒷머리를 쓰다듬는 수연의 남자친구.
분을 삭이며 소주뚜껑을 손으로 우그리는 민우의 손.
소주병을 잔에 기울이지만 비어 있다. 벌써 두병을 다 비운 상태....
수연과 남자친구의 모습이 정다운 만큼 민우의 마음은 점점 더 괴롭다.

#13. 모텔 앞/ 밤

(모텔 앞)

모텔 앞, 담장에 기대어 불 켜진 창들을 올려다보는 잔뜩 굳은 표정의 민우.
모텔을 나서던 젊은 남녀 한 쌍이 어둠 속에 있는 민우를 보고 놀라 걸음을 재촉한다.
갑자기 두 사람의 뒤를 쫓는 민우. 씩씩대며 두 사람을 앞질러가 돌아서며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어 갈라놓으며 지나간다. 황당해하는 두 사람.
남자가 민우를 따라가려하자 여자가 말린다.
수연과 남자친구가 나오자 몸을 숨기는 민우. 얼굴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골목길)

수연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골목길을 걸어가고, 민우가 거리를 두고 뒤따른다.
드문드문 켜져 있는 가로등으로 어두운 골목길.
남자친구의 뒤로 다가와 둔기로 내리친 후 달아나는 민우.
둔기에 맞아 비틀거리는 수연의 남자친구.

#14. 고시촌 언덕/ 밤

수연이 힘든 발걸음을 옮기며 계단을 오르고 있다.
개 짖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간다.

수연이 올라가는 모습을 쫓으며 힘겹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민우.
고시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는 수연. 더욱 빨라지는 민우의 발걸음.
수연이 계단을 올라와 항상 들어가는 골목으로 접어들려 하자
민우가 따라 잡지만 숨이 차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민우 : (헐떡이며) 저...저기요?

검은 그림자가 뒤에서 덮치는 듯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치다 자리에 주저앉는 수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 : 누....누구세요?

민우 : (헐떡이며) 아이씨... 그게 아니라....

민우가 수연에게 다가가자 민우의 그림자가 수연을 덮는다.
수연이 얇은 비명을 내지르자 순간 놀라 어찌지 못하다가 다시 수연이 비명을 지르자
수연의 입을 틀어막는 민우.
이때 골목 안에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당황스러워 하며 어둠에 묻힌 야산으로 끌고 가는 민우.
공포와 두려움에 신음 소리만 겨우 내뱉으며 발을 끌며 민우에게 끌려가는 수연.

#15. 야산/ 밤

굵은 빗방울이 한 두 방울 떨어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진다.
수연을 뒤에서 안은 민우의 코로 수연의 머릿결 냄새가 자극한다.
두려움에 눈을 감고 흐느끼는 수연.
민우의 한쪽 손이 치마 위로 올라간 윗옷 사이로 수연의 맨살에 닿는다.
순간, 민우의 표정이 아득해지며 야수처럼 돌변한다.

수연의 몸이 순간 긴장으로 움츠러들며 저항하자 민우가 완력으로 제지한다.
이때, 수연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땅에 떨어진다.
민우의 거친 손길이 수연의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벗겨 내리고 완강히 저항하는 수연.
팬티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

수연의 입에서 울음이 섞인 신음 소리가 새어나온다.
자신의 바지를 끌어 내리고 뒤에서 겁탈하는 민우. 수연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른다.
나뭇잎들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음침하게 스친다.
걱정에 오르는 민우. 수연의 입을 막고 있던 민우의 손가락 중 무명지가 자연스레
수연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수연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민우의 손을 타고 수연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카메라 Till up하면 밤하늘을 배경으로 스산하게 움직이는 나뭇잎이 보여 진다.

#16. 민우의 방 안/ 낮

책상에 앉아 '형법' 책을 읽고 있는 민우.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무심코 책장을 넘기는 민우.
넘긴 책의 페이지에 강도 강간에 대한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볼펜을 왼 손에 힘이 들어가며,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책에 둥근 원을 미친 듯이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그린다.
너무 힘을 준 탓에 책이 찢어지고, 밑에 있던 페이지에도 둥근 원이 그려져 있다.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다가 볼펜으로 허벅지를 내리 찌는다.
양쪽 어금니를 깨물며 새어 나오는 신음 소리를 속으로 삭히는 민우.
볼펜을 빼자 청바지 위로 붉은 피가 번지며, 허벅지를 둥글게 울들인다.

#17. 몽타주/ 낮,밤

(야산/ 낮)

수연을 강간했던 야산이다.

발치계에 쇧조각 하나가 보인다. 수연이 떨어뜨린 목걸이가 반쯤 흠에 파묻혀 있다.

흠에 파묻힌 목걸이를 손에 드는 민우. 목걸이에 수연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

(민우방 안/ 밤)

비가 내리는 저녁 무렵, 창을 통해 고시원 앞 계단을 내려다보는 민우.

(고시촌 언덕/ 밤)

전봇대에 붙은 가로등만이 쓸쓸히 아래로 이어진 계단을 비추고 있다.

나무숲을 올라다보다가 고개를 숙이는 민우.

#18.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낮

잔뜩 인상을 쓴 최형사의 얼굴. 강력반장의 책상을 중심으로 강력반형사들이 둘러서있다.

강력반장 : 두 달 사이에 OO동 일대에서만 강간사건이 벌써 세 건째야!

늦은 시간 귀가 길에 당했다는 것도 그렇고,

범행 장소가 학교 안, 공장, 야산 인걸로 봐서 우발적인 범행 같지가 않아!

형사1 : 동일범 아닐까요?

강력반장 : 수사를 통밥으로 해?

구역 내 강간 전과자 리스트 체크해서 조사하고.....

최형사하고 김형사는 피해자들 다시 면담해서 면식범일 가능성도 검토해봐!

김형사 : 네, 알겠습니다.

형사2 : (혼잣말로) 뭘 단서가 있어야 잠복을 하든지 하지...

(강력반장에게) 반장님! 이 넓은 데를 무슨 수로 커버합니까?

강력반장 : 당분간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

흠어지며....웅성웅성.....

#19. 일반주택 안/ 낮

강간 피해자인 여대생의 방.

김형사가 여대생과 면담을 하는 동안 최형사는 창밖을 보고 있다.

김형사 : 혹시 평소에 귀찮게 따라다니던 사람은 없습니까? 그 왜....스토커라고?

여대생 : (대답 없이 흠쩍이며 고개만 젖는다.)

김형사 : 특별한 신체적 특징은요?

여대생 :뒤에서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김형사 : 이봐요. 학생! 잘 좀 기억해 봐요?

 뭐 이상한 버릇이나... 사투리를 썼던가?....

여대생 : 없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왜 귀찮게 이러세요?

김형사 : (혼자 답답한 듯 중얼거리며) 아니. 따졌으면 잡아야 될 거 아냐!

여대생 : 따여요?

김형사 : (당황한 듯) 아니, 그게 아니고....내 말은.....

최형사가 눈짓으로 김형사를 말린 후, 창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본다.

#20. 교도소 면회실 안/ 낮

교도소에서 상태를 면회하는 창원. 입회경관이 뒤에 있다.

창원 : 월척 두 마리하고 피라미 한 마리가 장난친 게 확실합니다.

상태 : (어금니를 깨물며) 미꾸라지 같은 새끼들! 확 낚아채버려....

창원 : 형님! 조금만 기다립시오. 떡밥을 풀어 냈으니까 입질을 할 겁니다.

#21. 병원 진료실 안/ 낮

의사와 마주 앉은 최형사.

의사 :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했지만....

 의학적으로도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제... 그만 환자를 위해서도 편안히 떠나보내시는 게.....

최형사 : 당신! 그게 의사가 할 소리야?

의사 :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형사 : 개소리 집어치워! 다시 한 번 그딴 소리하면 당신 가만 안 뉘!

의사 : 저희 사정도 이해를 해주셔야합니다!!

최형사 : 병원비!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내켰다구....내면 될 거 아냐!!!!

최형사가 의자를 넘어뜨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최형사 : (문 앞에 서서) 당신들, 사람 목숨가지고 장사하지 마!!

#22. 병원 원무과 안/ 낮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는 최형사.

원무과 여직원 : (계산기를 두들기며) 이번에 계산 하신 것 빼면 천 사백 육십 만원

남았는데 나머지 언제?

최형사 :곧 해결 하겠습니다.(돌아서 간다.)

멀리서 최형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창원의 얼굴에 뭔가 떠오른 듯 표정이 달라진다.

#23. 석재의 꼬치구이집 안/ 밤

한가한 분위기의 조그만 꼬치구이집. 창원이 들어선다.

주인인 석재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민다.

창원 : 오랜만입니다. 형님!

석재 : (시큰둥하게 쳐다본 후) 형님! 내가 왜 니 형님이냐? 너하고는 씨가 달라 임마!!!

창원 : (빈 테이블들을 둘러보며) 장사는 잘 되세요?

석재 : 그만큼 들락날락 했으면 너도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웬일로 날 찾아왔냐?

창원 : 일은 무슨?.....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 왔죠?

석재 : 나 손 털었다!

창원 : 압니다! (눈치를 보며) 저... 형님! 최형사 잘 아시죠?

석재 : (뜨악한 눈길로 창원을 바라본다.) 최형사가 한 둘이냐?

창원 : 왜? 같이 근무했던 적 있잖아요?

석재 : 그런데....

창원 : 부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 같은데.... 무슨 병이에요?

석재 : 씨발! 살다보니 별 좇같은 일이 다 있구만!

광패새끼들이 형사들 뒷조사를 하고 다니질 않냐?

창원 :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석재에게 내민다.)

석재 : 아! 술이나 한잔 팔아주던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꺼져라!

창원 : 그냥 별일 아니니깐..... 아는 대로만 얘기해 줘요!

석재 : (돈 봉투에 눈길을 주다가 챙겨 넣으며) 나 치사한 새끼 만드는 거 아니지?

몇 년 전에 강도한테 당해서 그렇게 됐지 아아!

자세한 거는 나두 몰라? 그 땐 나두 옷 벗었을 때라.....

창원 : (비꼬듯이) 와아, 형사 와이프도 강도를 당하네요.

석재 : (눈을 번뜩이며) 마! 얼굴에 형사 와이프라고 써 있....(말하다 말고)

야! 너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이야?

창원 : 아!....아무것도 아니라니깐..... 그냥 궁금해서요...

(창원의 얼굴에 복잡한 생각이 얽혀든다.) 술이나 좀 주세요?

#24. 개인 병실 안/ 낮

병실 복도를 기웃거리던 창원이 간호사1이 다른 용무를 보는 사이 병실 안으로 들어간다.

출입문의 유리 사이로 병실 안의 창원의 모습이 보이고.

창원이 카메라를 꺼내 환자의 사진을 찍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불을 들쳐본다.

용무를 마친 간호사1이 병실을 지나다가 누군가가 보여 병실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 병실로 뛰어 들어간다.

간호사1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원 : (놀라며) 아니!.... 그냥 얼굴이라도 담아 돌려고....

간호사1 : 아저씨! 이 환자 가족 아니죠?

(창원을 떠밀며) 어서 나가세요!!!

떠밀리 듯 병실 밖으로 나오는 창원. 황급히 자리를 뜬다.

#25. 학교 담장 골목길/ 밤

(학교 담장 골목길)

담장을 따라 주차된 차 안에서 잠복근무를 서는 최형사와 김형사.
순찰중인 다른 조의 차가 다가와 멈춘다.

형사3 : 야! 씨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 지랄 하나?

김형사 : 그러게요!

형사3 : 수고!

순찰차가 떠나고.....눈을 감고 있던 최형사가....

최형사 : 저 새끼 눈깔엔 이 방중에도 개미새끼가 보이냐 보지?

잠시 후, 여자2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백미러를 통해 여자2를 끌고 가려는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추다닥 차에서 내리는 최형사와 김형사.

어둠 속에 있던 남자가 여자2를 포기하고 도망간다.

김형사 도망간 남자를 추격하고, 최형사는 겁에 질린 여자2를 한번 살핀 후 뒤 쫓는다.

(산동네 골목길)

산동네 골목길을 요리저리 다람쥐처럼 달아나는 남자. 어느 덧 사라지고 없다.

골목길에서 조우하는 최형사와 김형사.

사방을 둘러보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시 추격한다.

김형사의 시선으로 도주하는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추격하는 김형사.

도망가던 남자가 길가에 세워 둔 플라스틱 드럼통을 밀어내며 도망간다.

드럼통에서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 굴러 내려오는 드럼통을 피하는 김형사.

드럼통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가는 최형사.

질퍽한 음식물 쓰레기에, 넘어지는 김형사.

이를 틈타 야산 속으로 사라지는 남자.

김형사에게 달려오는 최형사.

최형사 : (숨을 헐떡이며) 김형사, 괜찮아?
뚱 뚱은 얼굴로, 옷에 묻은 오물들을 털며 신경질적으로 일어나는 김형사.

#26. 패션거리/ 낮

(패션 거리)

중앙 가판대와 양쪽 상점들로 번잡한 상가거리.
민우가 상가건물에서 걸어 나오며 주변 상가건물들을 살펴본다.
다시 메모지를 확인하며 주변 건물들을 둘러보던 민우의 시선 속으로 수연의 모습이 얼핏 들어온다. 옷을 고르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걸린 옷들 사이로 보인다.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제자리에 멈춰선 채 지켜보지만 분명히 수연이다.

값을 흥정하고 있는 수연을 지켜보는 민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굳어진다.
민우의 시선은 수연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수연이 옷을 넣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게를 떠나자, 수연을 뒤따르며 미행한다.

(지하철역 계단)

몇 군데의 가게를 더 기웃거리던 뒤 수연은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간다.
수연을 뒤따라 계단을 내려가는 민우.

#27. 지하철 안/ 낮

승객들 틈에 앉은 수연을 등지고 서서 유리창에 비친 수연의 모습을 지켜보는 민우.
수연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듯 눈을 감은 모습이다.

돌아보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며 창에 비친 수연의 모습을 지켜보는 민우.
지하철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며 수연의 모습이 갑자기 유리창에서 사라진다.
황급히 뒤를 돌아보는 민우.

#28. 대학교 앞 서점 안/ 밤

(몽타주) 복사를 하고 있는 수연 너머로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민우.
용지를 교환하는 수연, 가게 안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민우, 페이지를 넘기는 수연.
내려지는 셔터, 다시 열리고, 지나가는 민우의 얼굴, 복사를 하는 수연.

용기를 낸 민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책을 고르는 척 하다가
책을 정리하는 수연을 힐끗 쳐다본다.
수연이 민우의 시선을 느끼고, 민우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친다.
수연이 민우에게 다가가자 당황하는 민우.

수연 :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민우가 당황하며 앞에 있는 다이어트 관련 책을 뽑아준다.

민우 : 아! 찾았습니다.

수연이 민우가 든 책을 보고 관련된 다른 책 한권을 뽑아주며

수연 : 요즘 이 책이 더 잘 나가는데요!
민우 : (멋 적은 듯) 아... 네, 감사합니다.

민우가 수연이 준 책을 받아들곤 당황하여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

수연 : 손님! 계산하셔야죠!

한번 더 당황하며 돌아보는 민우.

#29. 대학교 서점 앞거리/ 밤

서점을 나온 민우가 쫓기기라도 하듯 불안한 모습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코너를 돌고 난 이후에야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쉬는 민우.
벽에 붙어서 지나온 도로를 훑쳐보듯 바라보는 민우.

#30. 대학교 앞 서점 안/ 낮

민우가 서점으로 들어선다.
수연이 책을 민우에게 주며....

수연 : 이 책 복사할 부분이 찢어져 있어요.
민우 : 네?

태연한 척하며 책을 받아들고 살펴본다. #16에서 민우가 볼펜으로 그린 동그라미와 찢어진 부분이 보인다. 황급히 책을 덮으며.....

민우 : 아!....제가 급히 나오느라고 책을 잘못가지고 온 것 같네요.....

수연이 민우의 황망해하는 얼굴과 책을 들고 있는 민우의 손을 뻗어 쳐다보며.....

수연 : 혹시.....(민우의 얼굴에 긴장이 어린다.)..... 급하신 건가요?
민우 : (놀라며) 네?
수연 : 급하신 거면.....다시 가지고 오세요. 해 드릴게요.

민우 :아니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수연 : 그러세요.... 참! 요즘 다이어트는 잘 되세요?

민우가 영거주층 당황해하며 돌아서 나간다.

#31. 꽃집 안/ 밤

꽃집에서 장미꽃을 사들고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민우.
웃매우새를 단정이 한다.

#32. 대학교 앞 서점 안/ 밤

가게 밖은 어느덧 어둠이 깔려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복사한 종이를 간추리는 수연, 종이에 손가락을 뺨다.
피가 나오자, 밴드를 꺼내어 손가락에 감는다.
밴드가 강긴 손을 보다, 바깥을 바라보고 상념에 잠긴 수연.
이때 민우가 들어선다.
밝은 얼굴로 민우를 맞는 수연. 민우의 표정도 밝다.
등 뒤로 감춘 꽃을 수연에게 건네는 민우.

수연 : (놀라며) 저 주시는 거예요?

민우 : (머쓱한 듯) 그냥... 예뻐서요!

수연 : (부끄러워하며) 고마워요!

향기를 맡은 후 카운터 아랫자리에 쟁겨놓는 수연.

수연 : 근데...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민우 : 네.... 차가 와서 그런지 비가 많이 막히네요.

수연 : 네? (민우 당황하면 수연 웃는다.)

회사가 이 근처 아니었어요?

민우 : 다른 곳에서 일이 좀 있어서....

수연 : (복사한 것을 주며) 여기.....

이렇게 복사할 게 많은데 회사엔 복사기가 없나보죠?

민우 : (당황해하며) 아, 네....회사가 고장이 나서요.

수연 : (웃음을 참으며) 회사가 고장이 났구나....

민우 : 저, 일은 끝났어요?

수연 : 네....

민우 : 저, 아직 안 했으면 같이 할래요?

수연 :월요?

민우 : 식사요.

수연 : (서점 밖을 바라보며) 비도 오는데 소주나 한잔 할래요?

#33. 식당 안/ 밤

#12와 동일한 장소. 서빙하는 사람들과 손님들로 분주하다.

밴드를 붙인 손으로 파전을 먹는 수연을 지켜보는 민우의 표정이 불안하다.

민우 : (파전을 먹으며) 여기..... 자주 와요?

수연 : 몇 년 전에 이 근처에 살았어요.....

그때 가끔 왔었는데.... 이사 가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민우 :

민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친다.

#12에서 수연과 남자친구가 앉았던 자리를 돌아보는 민우. 그 자리는 비어있다.

수연 : 이 집 파전 꽤 맛있죠.

어쩔 때 한 번씩 생각나긴 했는데.....혼자 오기도 뭐하고.....

민우 :사귀는 사람 없어요?

수연 : (살짝 웃으며) 글썄요....민우씨는요?

민우 : 전, 그런 거 없어요.

수연 : 왜요?

민우 :그냥.....

수연 : 무슨 대답이 그래요! 재미없어!

비가 그치고, 식당의 유리벽을 통해 보이는 민우와 수연.

소주를 반쯤 마신 수연이 쓰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얼떨결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민우.

파전이 담긴 접시도 어느덧 비어 있고, 수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우가 담배를 거꾸로 세워 식탁에 두드리다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담배필터 부분을 살짝 적신 후 담배를 피워 문다. 이때 화장실에 다녀오던 수연이 그런 민우의 모습을 보며..

수연 : 담배를 왜 커피에 적서 피워요?

민우 : (당황해하며) 아!.... 그냥 어쩌다가 버릇이 됐어요!

수연 :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체부위가 손이래요....

그러니까 손이 뭘 하는지도 모르죠!

민우 : 네?

수연 :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34. 버스 안/ 밤

민우가 탄 버스. 늦은 시간이라 좌석에는 민우를 포함해 세 명만이 타고 있다.

버스 중간쯤 오른쪽에 있는 1인승 좌석에 앉은 민우. 우울한 표정이다.

수연 V.O :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싫어지더라구요.....얼굴도 마주치기 싫고...

그 사람 바람둥이였거든요.....그래서 내가 먼저 떠났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민우. 도시의 야경이 흘러간다.

수연 V.O : 종이라고 알보다간 큰 코 다쳐요....

그럴 때 있잖아요.....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닥치는 불행처럼.....

사는 게 그런 건가 봐요.....재밌죠?

창을 열어 바깥 바람을 맞는 민우.

#35. 대학교 서점 앞거리/ 낮

서점에서 함께 나오는 민우와 수연.

민우 : 몸살인데 하루 푹 쉬지 그랬어요?

수연 :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민우 : 가면서 약 지어서가요....

수연 : 사다 준 것도 남아 있는데.....

수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민우와 함께 거리를 걸어온다.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민우와 수연.

카메라 앞으로 현석이 여자3과 함께 나타나 승용차를 타고는 사라진다.

보행신호로 바뀌고 길을 건너오는 민우와 수연.

#36. 옥탑방/ 밤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옥탑방 옥상.

손에 찻잔을 들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 민우와 수연의 표정이 평온해 보인다.

수연 : 민우씨는 왜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민우 : 수연씨가 어디가 어때서요?

수연 : 민우씨는, 절 잘 몰라서 그래요!

민우 : 수연씨도 절 잘 모르잖아요!...

혹시 말이에요..... 죄짓고 착한사람하고, 죄 안 짓고 나쁜 사람하고,

그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수연 : 죄 안 짓고 착한사람이요.

민우 : 아뇨.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요?

수연 :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우 :그런 게 아니라....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수연 : 혹시, 전과자세요?
민우 : 아뇨, 그런 건 아니고.....
수연 : 민우씨는 착한사람 같아요.
진짜 죄지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두 사람을 배경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37. 교도소 정문/ 낮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카메라가 내려오면...
교도소 철문을 배경으로 상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온다.
뒤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중하게 난다.

창원이 두부를 내밀자 건성으로 한입 베어 물고, 나머지는 손으로 비벼 세수하듯
얼굴에 문지른다. 바닥에 흩어지는 두부.

#38. 빌딩 지하주차장, 사우나/ 낮

(빌딩 지하주차장 안)
기철의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다.
파킹을 한 후 기철부하1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기철.

잠시 후 창원이 차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본 후 기철의 차로 향한다.

(사우나 한증막 안)
사우나 한증막 안. 기철과 기철부하1이 나란히 앉아 있다.

기철 : 현석이 놓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냐?
기철부하1 : 네!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습니다.
기철 : 이거 또 어디 쳐 박혀서 약에 절어 있는 거 아냐?
애들 풀어서 찾아 봐!!!

(빌딩 지하주차장 안)
창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낚시 가방을 뒤지다가 낚시 도구용 생선회칼 KAZAX No.311를
찾아낸다. 황급히 낚시도구들을 원위치로 정리 한 후 사라지는 창원.

#39. 몽타주/ 밤

(호텔 안/ 밤)

현석과 자고 있던 여자4가 슬그머니 일어나 옷을 입는다.

잠시 후, 호텔 룸을 열어주고는 밖에서 기다리던 창원에게 슬쩍 윙크를 하고는 사라진다.
들이 닥치는 창원 일당, 자고 있던 현석의 머리를 향해 스탠드로 내리친다.

(냉동 창고 안)

냉동 창고에서 현석을 줄에 매달아 족치는 창원 일당.

반쯤 초죽음 된 현석이 창원이 내민 녹음기에 무언가 말을 한다.

#40. 룸살롱 룸 안/ 밤

룸살롱 룸, 창원이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상대에게 무언가 은밀한 보고를 하고.....
술잔을 훌쩍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 상태.

창원 : 최형사가 그 일로 이기철에게 억인 게 확실합니다.

상대 : (회심의 미소를 띠며) 그래?

창원 : (녹음테이프를 보여주며) 현석이 새끼가 다 붙었습니다.

상대 : (Something Special 술병을 들며) 기철아! 씹씹이 좇나게 스페셜하다!!!
좇같은 새끼들!.... 날 가지고 놀았다 이거지!

창원 : 최형사부터 족칠까요?

상대 : (옆에 앉은 여자5를 쳐다보며) 족쳐서 되겠냐? 좇나게 썩어야지 안 그래?

#41. 냉동 창고 안/ 낮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닐커튼이 가로막고 있고, 창고 안에는 냉동된 생선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다. 초죽음이 된 채 한쪽 천장에 매달린 현석.

상대가 호스를 가리키자 물을 들고 호스를 상태에게 주는 상태부하.

현석에게 물을 뿌리자 잃었던 정신을 차리며 벌벌 떠는 현석.

상대가 담배를 꺼내 물자 창원이 불을 붙여준다. 한 모금 들이마신 후....

상태 : 마약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황홀할 거야!!

뒤로 묶인 현석의 손가락 끝을 담뱃불로 지지는 상태, 야비한 웃음을 흘린다.

상태 : 맛이 어때? 찌릿찌릿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맛이 기가 막히지?

창원이 비닐 팩에 들어 있는 기철의 칼을 상태에게 보여준 후, 주머니에서 기철의 칼과 똑
같은 KAZAX NO.311을 꺼내어 상태에게 준다.

창원 : 똑같은 걸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칼을 보고 벌벌 떠는 현석.

상태 : (칼로 현석의 목을 살짝 그으며) 어때? 황천길이 환하게 보이지?
(칼날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본 후) 살려 줘? (돌아서며)
살려 주자니 좃갈고.... 죽여 버리자니 더 좃갈고.....

상태가 돌아서며 칼로 현석의 목을 깊숙이 찌른다.

#42. 산동네 골목길/ 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골목길. 인적이 없다.
차안에서 밀려오는 졸음을 쫓느라 애쓰는 최형사.
하이힐을 신은 여자6의 종종걸음. 사이드미러와 백미러에 비치는 여자6의 모습.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며 백미러를 보는 최형사.
민우가 여자6의 뒤를 따른다. 반쯤 감기는 최형사의 눈.

차 앞을 지나가는 여자6. 최형사가 즐린 눈으로 백미러를 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차문을 두드리는 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는 최형사.
김형사다!..... 차문을 열어준다.

김형사 : 미안해 형! 피곤하지....
최형사 : 왜 나왔어? 와이프 생일인데...오늘은 하루 쉬라니까.....
김형사 : 저녁 같이 먹었으면 됐지. 뭐.....
이거 (보자기를 보여주며) 집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
최형사 : 뭐냐?
김형사 : 일반찬! 형 주라고 챙겨줬어.....
최형사 : ...새끼!.....

#43. 몽타주/ 밤

(기철의 사무실 안)

기철의 사무실, 기철부하1이 황급히 뛰어 들어온다.

기철부하1 : 형님! 현석이 형님이 당한 것 같습니다.
기철 : 당하다니? 무슨 말이야!

(전화박스)

전화박스, 창원이 전화를 걸고 있다.

(경찰서 현관)

경찰서 현관, 출동준비를 마친 형사들이 뛰어 나온다.

(유홍가 뒷골목길)

기철 일당이 황급히 건물 지하로 내려간다.

이를 지켜보는 창원의 뒷모습.

(건물 지하)

빈 박스들 사이에서 시신으로 변한 현석을 발견하는 기철 일당.

현석의 주변에선 KAZAX No.311 회칼이 피가 묻은 채 버려져 있다.

당황하는 기철 일당. 이때 들려오는 경찰 패트롤카의 사이렌 소리.

(유홍가 뒷골목길 / 건물 지하)

경찰 패트롤카 3대가 건물 주변에 멈춰서고, 차에서 내린 경찰들과 형사들이 건물을 포위하며 좁혀 들어간다. 당황하는 기철 일당.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기철부하1 : 형님! 이쪽으로 빨리 피하십시오!!!

기철 : 씨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철일당이 다른 비상구로 도망가지만, 그곳으로도 형사들이 들이닥친다.

(유홍가 뒷골목길)

창원이 상황을 주시하다가 태연한 모습으로 행인들 속으로 사라져 가면,

차가 급정거하며 최형사가 내려 사건현장으로 급히 뛰어간다.

기철 일당이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 나온다.

최형사를 바라보며 끌려가는 기철.

기철을 바라보는 최형사의 얼굴로 사이렌 불빛이 흐른다.

현장이 수습되는 사이,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서 있던 최형사.

핸드폰이 울리자 핸드폰을 받는 최형사.

최형사 : 여보세요?

상태 V.O : 오랜만이야. 최형사!!

최형사 : 누구냐?

상태 V.O : 이거 좇나게 섭하네....그새 목소리도 잊었나?.....나 조상태야!

최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카메라가 최형사를 따라 360도 회전한다.

사방을 둘러보는 최형사.

상태 V.O : 그동안 재미 좋았나?...면회라도 한번 올 줄 알았는데....

한 십년 썩을 걸 삼년으로 구해줬으니.....내 보답은 해야지!

아참, 그건 그렇고 최형사한테 돌려받을 게 좀 있지?

최형사 :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지껄이는 거야!
상태 V.O : 형사가 조폭 끄나풀 노릇을 해서야 쓰나? 안 그래....
조만간 다시 보자구!...(전화가 끊어진다.)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는 최형사.

#44. 몽타주/ 낮, 밤

(취조실 안/ 낮)

초체한 모습으로 취조실에 앉아 있는 기철.
테이블 위에는 입도 대지 않은 설렁탕 식기가 놓여 있다.

(빌딩 지하주차장 안/ 낮)

기철의 차 트렁크를 열어 낚시 도구들을 살펴보는 최형사.
낚시 도구용 생선회칼이 보이지 않는다.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밤)

현장에서 발견된 회칼에서 지문감식기로 지문을 채취하는 수사관.
어수선한 분위기의 사무실....팩스와 전화통화, 워드를 치는 소리들이 뒤엉켜 소란스럽다.
기철과 함께 연행된 기철의 부하들이 형사들과 1 대 1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강력반 사무실 분위기와는 달리 자기 자리에 앉아 담배를
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최형사.

컴퓨터 모니터로 지문 대조작업을 하는 수사관. 어느 순간 모니터 화면이 멈춘다.
지문 대조 작업을 하던 수사관이 강력반장에게 소견서를 전달하며 보고한다.
보고를 들은 강력반장이 최형사의 책상으로 다가와 소견서를 책상위에 던진다.

강력반장 : 이기철의 지문으로 확인됐어..... 최형사가 마무리 하지.....

#45. 경찰서 취조실 안/ 밤

테이블 위에 지문 감식 소견서가 놓여 있고,
말없이 시선을 외면한 채 앉아 있는 최형사와 기철.
최형사가 기철에게 담배를 내밀고 불을 붙여 준 후 자신도 담배를 피운다.

최형사 : 어떻게 된 거야? (작은 목소리로) 나한테는 바른대로 말 해야지?

기철 :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형사를 돌아보며) 몇 번이나 애길 해야 알아들어?
호랑이도 지 새끼는 안 잡아먹어!
어떤 개새끼가 쳐 놓은 덫에 걸린 거라니까...

최형사 : 그 칼 니가 쓰던 칼이야!!
끌어 오르는 열에 답답한 듯 셔츠의 단추 하나를 더 풀어 해치는 기철.
최형사가 그런 기철의 행동을 유심히 살핀다.

기철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최형사 :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기철 : (최형사를 노려보며) 이봐, 최형사!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두 눈을 치켜뜨며 기철을 노려보지만, 이내 눈길을 거두고 감정을 억누르는 최형사.

최형사 :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거 알지?.....
설사, 니 말대로 덮에 걸렸다 쳐도.....끔찍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기철의 얼굴이 냉소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뀐다.

기철 : 그러다고.....사람을 이렇게 내몰아?
어이, 최형사 잘 들어. 당해도 나 혼잔 안 당해....

최형사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친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과 침묵이 흐른다.

#46. 몽타주/ 밤

(술집 골목길)

술집 골목길. 최형사가 뼈끼 한명을 거칠게 몰아세우며.....

최형사 : 용준이 지금 어디에 있냐?
뼈끼 : 아!! 왜 이러세요?... 정말 몰라요!

(툰살롱 안 복도)

툰살롱 복도. 웨이터 용준이 최형사를 보자,
서빙용접시를 든 웨이터2와 부딪히며 도망간다.

(비상계단)

비상계단에서 잡히는 용준. 몇 대 얻어터진다.

최형사 : 이 새끼, 또 악했구만!
용준 : 악은 무슨....
최형사 : (주머니를 뒤지고 몸에서 냄새를 맡고나서) 신발 벗어!
용준 : 아, 형님 왜 이러슈 예?

용준의 신발을 뺏어 굽을 돌리자 나오는 마약.
돌아간 굽으로 용준의 머리를 미는 최형사.

최형사 : 어때 한번 눈감아 줘?.....최근에 상태 본적 있지?

용준 : 아!.....참!

최형사 : 지금 어디에 있어?

용준 : 따라오슈....

최형사에게 신발을 받아 신는 척 하며, 최형사를 뺏다 걸어차고 도망가는 용준.
계단 밑으로 나가떨어지는 최형사.

(유홍가 거리 / 고층건물)

허탈한 표정으로 길가로 나서는 최형사.

주위 간판들을 보며 길을 걷는 최형사. 핸드폰이 울린다.

고층 건물에서 최형사를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와 교차로 보여 진다.

최형사 : 여보세요?

상태 : 날 찾고 다닌다고.....씨팔!! 그때는 짚도 찾아오더니.....돈과 약은 준비 됐나?

최형사 : 돈이라니, 무슨 돈?

상태 : 이거 왜 이러시나? 뻥 한일을 가지고.....

최형사 :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대!!, 새끼야!!!

상태 : 증거!...거 씨팔! 말 한번 좇나게 싸가지 없이 하네....

나, 두 번 이상 안 당해!!

아, 그나저나 마누라가 아주 참하게 생겼던데...안 됐어!

최형사 :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상태 : 병원에 누워 있는 니 마누라!.... 한때 꽤 삼삼했겠던데!

최형사 : 너! 이 좇같은 새끼!!!

상태 : (흥분해서) 야! 야! 야! 그래, 나 원래 좇같은 새끼야!!

좇같은 새끼가 지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함 보여줘!!!!

상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박살내 버린다.

전화가 끊어지자 다시 통화기록 번호로 걸려고 하는데 발신자 번호가 없다.

지나가는 택시를 급히 세우는 최형사.

#47. 병원로비 진료 카운터/ 밤

최형사가 흥분된 모습으로 급하게 카운터로 달려오자 약품을 준비하던 간호사1.

간호사1 : 안녕하세요?

최형사 : 저기? (숨을 돌리고) 물어볼 게 있는데....

간호사1 : 네.... 원데요?

최형사 : 최근에 저희 집사람 찾아 온 사람 없었습니까?

간호사1 : 글썄요.... 아! 맞다!!

얼마 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긴 했어요...

돌아서는 최형사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진다.

#48.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낮

회의 중인 형사들. 분위기가 험악하다.

형사1 : 지문까지 확인됐는데 무슨 정황이 더 필요합니까?.....하, 참! 답답하네!

강력반장 : 최형사 얘기도 일리가 있어!.....

정황만 있지....이기철이가 김현석을 죽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게.....

문제야!.....사건현장 전의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형사2 : 그거야 뻔한 거 아닙니까? 다 입막음 해 놓은 거지.....야! 최형사!

너는 왜 다 끝난 사건을 가지고 사무실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

애들 안보여! 안 그래도 잠복이다! 뭐다 죽을 맛인데....

최형사 :

형사3 : 내말이 그 말이다!

강력반장 : 시끄러!!! 아무튼 최형사는 이기철 주변부터 다시 조사해봐!

그리고 김형사!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어제 또 강간사건 접수 된 거 알아 몰라!!!

최형사는 나 좀 봐!!

#49. 경찰서 옥상/ 낮

강력반장 : (도심을 바라보며) 이기철이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어...

최형사 : 하지만... 반장님!

강력반장 : (최형사를 돌아보며) 니가 다쳐!!!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조용히 수사해보고, 확실한 물증 없으면 그냥 넘어가!

#50. 연립주택 3층 안/ 낮

(연립주택 안)

임신복을 입은 수연이 거실 한쪽 다림대에서 옷을 다리고 있다.

초인종이 울리자 의아한 듯 돌아보며 문 쪽으로 걸어간다.

수연 : 누구세요?

민우 : 나야!

수연 : (문을 열며) 어떤 일이야? 이 시간에.....

민우 : (웃는 얼굴로 들어오며) 응....이 근처에 왔다가 보고 싶어서 왔지....
뭐 했어?

수연 : 옷 좀 다리고 있었어.
우리나라 공무원들 너무 편한 거 아냐?

민우 : (식탁위의 택배 박스를 보며) 저건 뭐야?

수연 : 응, 친구가 애기 옷을 보냈네!..... 식사는?

민우 : (수연에게 사과봉지를 내민다.) 했어.... 자기는?

민우가 수연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는다.

수연 : 대충 먹었어.... (봉지를 열어보고 웃으며) 사과네!

민우 : 잘 챙겨먹어....그래야 우리 아기도 튼튼하지.....

수연 : 알았어. 뭐 마실래?

민우 : (일어서려는 수연의 손을 잡아 앉히며) 됐어....

민우가 수연의 배에 얼굴을 가져가며 쓰다듬듯 만진다.

민우 : 아가야! 잘 있지....아빠야.....

수연이 흐뭇한 표정으로 민우를 내려다본다.

민우의 손이 배에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가 수연의 가슴을 만진다.

고개를 든 민우가 수연에게 키스를 한다.

민우의 손이 수연의 치마 속으로 들어간다. 거칠어지는 숨소리.

팬티를 끌어내리려고 하자 수연이 민우의 손을 잡는다.

수연 : (얼굴을 붉히며) 왜 이래?

민우 : (한껏 달아오른 표정으로) 나....미치겠어!...우리 오랫동안 못 했잖아.....

수연 : (불안한 표정으로) 아기 때문에 어떻게.....

민우 : 내가 알아서 할게....

민우가 수연의 팬티를 끌어내린다. 수연은 거실 유리를 통해 바깥을 살펴본다.

수연을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민우가 수연을 소파에 앞드리게 자세를 잡아준다.

흥분과 불안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민우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주는 수연.

민우가 바지를 내리고 수연의 치마를 들어 올려 후배위로 섹스를 시도한다.

소파위에 있던 사과봉지에서 사과가 굴러 나와 소파 위에서 흔들린다.

조심스레 움직이던 민우의 동작이 점점 더 커진다.

소파에 밀리며 수연의 신음 소리도 점점 높아진다.

흥분이 고조되던 민우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수연의 입을 막는다.

점점 더 절정으로 치달는 민우.

민우의 손가락 중 무명지가 자연스레 수연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흥분상태에 있던 수연의 두 눈이 점차 이상한 빛을 띠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입속에 들어온 민우의 무명지를 혀로 느끼는 수연. 표정이 점점 더 공포로 변한다.

(야산)

(Insert) #15에서 수연의 입속으로 들어오던 민우의 손 Close up

(연립주택 안)

과거의 꿈꿨던 기억으로 낮이 나간 수연의 시선으로 다림대위에 세워진 다리미가 보인다.
다리미 바닥에 비친 민우의 얼굴. 민우는 흥분으로 절정에 오른다.
소파위에 있던 사과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시간경과)

근히 잠든 민우의 모습을 바라보는 수연.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돌아누워 생각에 잠기는 수연의 얼굴에 그 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벌떡 일어나 앉는다.

#51. 동사무소 안/ 낮

접수대. 주민등록초본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구겨버리고 돌아서는 수연.
다시 돌아 신청서를 바라본다.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초본을 뽑아 수연에게 건네준다.
긴장된 표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수연.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된다. 입주위의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52. 호프집 안/ 낮

500cc 호프를 벌컥벌컥 마시고 탁자에 소리 나게 내려놓는 수연.

수연 :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아가야 아닐 거야!

불룩한 배를 어루만지며 계속 같은 말만 중얼거린다.

#53. 마을버스 정류장/ 낮

마을버스 정류장. 수연이 동네 아주머니들 틈에 서있다.
마을버스가 다가와 정차하고 잠시 후 떠난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있는 수연.

#54. 연립주택 3층 안/ 낮

문을 열고 들어와 민우의 책상과 책장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는 수연.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작은 종이박스를 헤집다가
#15에서 수연이 떨어뜨린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목걸이를 발견하고 주워드는 수연, 목걸이에서 수연의 이니셜이 발견된다.
절망에 찬 얼굴로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는 통곡을 한다.

(시간경과)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여러 번 계속해서 울린다.
잠시 후 직접 키를 따고 들어오는 민우. 거실이 어둡다.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던 민우 유리조각을 밟고 신음 소리를 낸다.
거실 스위치를 찾아 불을 밝히는 민우. 거실 바닥을 보고 사색이 된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식 사진액자가 박살이 나있고,
거실 바닥에도 유리 파편과 화분이 쓰러져 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난 핏자국을 따라 고개를 돌리면 실성한 사람처럼
수연이 주방에 서있다. 혼비백산하는 민우.

수연 : (히스테리컬하게) 다시 날 찾은 이유가 뭐야?

민우 : 수....수연아! 무슨 말이야?

수연 : 그래도 설마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왜!!!

수연이 주민등록초본을 민우에게 던진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는 민우의 손이 떨린다.
수연이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민우에게 던진다.

수연 : 너 아니지? 아니지? 왜 말 못해? 아니라고 말하란 말야!!!

민우 :

수연 : 그날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 때문에....난 모든 걸 포기했어....알기나 해?

그때 난 결혼하기 직전이었어.....

말해 봐? 어서!!!! 말하란 말이야, 나쁜 새끼야!!!

민우 : 제발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수연 : 진정해?

쥐고 있던 목걸이를 민우에게 던지는 수연.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바라보는 민우의 두 눈이 흔들린다.

민우 : (사태를 직감하고 무릎을 꿇으며) 내가... 다 말할 게....

수연이 몸을 벌벌 떨며 민우의 대답을 기다린다.

민우 : 나도 그 순간 정신이 나갔었나봐.....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땐 나도 몰랐어! 내가 미쳤었나봐.... 하지만!!!

(수연을 올려다보며) 수연아! 이것만은 진실이야!!!

널 정말 사랑했어!.... 믿어줘!!!!

수연 : 어쩔, 이렇게 지독하니.....그게 사랑이니?

그럼 난 댜데? 넌 사랑도 아냐!....야, 이 미친 새끼야!!!!

수연이 발작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민우에게 덤벼든다.

민우가 수연의 팔을 잡고 말리는 순간 수연이 기절을 하며 힘없이 민우의 품으로 쓰러진다.

#55. 일반병실 안/ 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용서를 구하는 표정으로 잠든 수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민우.

수연의 손에 생긴 상처를 바라보는 민우. 수연의 손을 잡는다.

의사 V.O : 산모의 심리상태가 지금처럼 계속 불안하면 유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수연이 흠칫 놀라며 몸을 부르르 떤다. 놀라는 민우.

힘겹게 수연이 눈을 떤다. 초점이 흐려진 시야로 들어오는 병원 천정과 매달린 링거 병.

초점이 서서히 맞춰진다. 그리고 웅얼거리는 듯한 목소리가 점차 제 목소리로 들려온다.

민우 : 수연아! 괜찮아?

점차 뚜렷해지는 시야와 목소리. 옆에 있는 민우를 확인하자....

수연이 갑자기 비명과 함께 히스테리컬한 발작의 증세를 보인다. 당황하는 민우.

발작 증세로 수연의 팔에 꽂혀있던 주사바늘이 뜯겨져 나가고...

링거를 매단 스탠드가 기울어지며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난다.

달려온 간호사3이 수연을 진정시키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민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

#56. 최형사의 아파트 복도/ 낮

신발도 신지 않고, 양말만 신은 발이 아파트 복도로 문을 열고 나온다.

바닥에는 며칠째 가져가지 않은 신문이 쌓여 나뒹굴고 있다.

카메라 위로 올라가면 사각팬티를 입은 최형사가 러닝만 걸친 채 눈이 부신 듯 눈을 찡그리고 서 있다.

두 집 건너 문이 열리며 주부 한명이 나오다가 최형사를 보고는,

놀라 눈길을 돌리고 서둘러 나간다.
눈을 떠 하늘을 올려다보는 최형사. 햇빛이 눈 속을 파고든다.
현기증으로 비틀거리며 문을 붙잡고 가까스로 기대선다.
문손잡이에 걸린 우유 배달 주머니.
주머니 속에 가득 담긴 우유 중, 맨 위에 것을 꺼내 들고 들어간다.

#57. 교도소 조사실 안/ 낮

(교도소 조사실 안)

조사실에서 기철을 기다리며 최형사가 담배를 피우며 서성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기철의 수갑을 풀어준 뒤 문을 닫고 나간다.
굳은 표정으로 최형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는 기철.

(교도소 조사실 앞)

(Insert) 조사실에서 나온 교도관이 조사실 안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교도소 조사실 안)

최형사가 다가와 담배에 불을 붙여 기철에게 내민다.
바로 받지 않고 뚝을 들인 후 천천히 담배를 받아드는 기철.
한 모금 깊게 들이 마신 후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기철의 표정에 싸늘한 냉기가 감돈다.

최형사 :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건과 돈을 요구하고 있어!

기철 :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처음으로 최형사와 눈을 마주친다.)

그래서 나더러 도로 게워내라!!! 이봐! 최형사!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신 차려!

그 새끼가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

최형사 : (몇 걸음 서성이며) 달리 방법이 없어!!

테이블 밑에 조그마한 녹음기가 부착되어 있다.

#58. 상태의 사무실 안/ 밤

상태가 블라인드를 통해 바깥 야경을 바라보고 있다.

테이블에 놓인 녹음기가 플레이되고 있다.

기철 V.O : 방법이 없어!.....야, 이 새끼야! 내가 가르쳐 줘?

최형사 V.O : 니 주제에 지금 날 협박해?

기철 V.O :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개소리 하지 말고, 가서 그 새끼나 처리해!

창원이 녹음기의 스톱 버튼을 누른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는 상태.

#59. 요구르트 대리점 안/ 낮

배달할 제품들을 가방에 챙기는 배달 아줌마.....
요구르트 하나를 따서 마시는 김형사.

김형사 : 배달 다니다보면 왜 행동이 이상하다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배달아줌마 : 글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아요.

배달하기도 바쁜데.....

김형사 :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이 친구들 혹시 본적 있어요?

배달아줌마 :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째 이리 하나같이 인상도 더러울까?

김형사 : 아! 누가 인상 보랬어요?

배달아줌마 : (사진 한 장을 보며)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줌마가 보던 사진을 뺏어서 보는 김형사.

#60. 순대국밥집 안/ 밤

식사를 하고 있는 형사들과 강력반장. 최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강력반장 : 다들 알고 있지? 얼마 전에 조상태가 나왔어.

아 자식 이거...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야!

아무래도 김현석이 피살사건도 조상태가 관련된 것 같아!

형사1 : 무슨 정보라도 있습니까?

강력반장 : 감찰반 보고서에 따르면 조상태가 입건될 때 밀수한 마약이

200g이 아니고 2kg라는 거야!.....나머지는 어딘가로 사라졌고....

형사1 : 그러면 그걸 이기철이가 가운데서 빼들었다는 겁니까?

강력반장 :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

형사3 : ... 그렇다면 틀림없이 중간에 정보원이 있었다는 건데....

형사2 : 그게... 김현석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조상태 검거는 최형사 사건 아니었나?

강력반장 : 속단하긴 일러!!

아무튼 바쁘고 피곤하지만 긴장 늦추지 말고....

조상태와 조직원들 소재부터 찾고, 업소들 중심으로 탐문 검색 강화해!

형사3 : 씨발! 감찰반 새끼들은 왜 뜨고 지랄이야?

바빠서 좇 볼 시간도 없는데..... 니미랄! 강력반이 동네북이야!!

형사2 : 그렇게 왜 나서서 화를 불러! 지 발등 짹는지도 모르고.....

김형사가 발끈하며 형사2에게 대든다.

김형사 : 선배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사2 :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김형사 : 최형사님 없다고 그렇게 막말 하는 거 아닙니다!

형사2 : 이 새끼가!!!

형사1이 형사2를 말린다.

강력반장 :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61. 부둣가 술집 안/ 밤

(부둣가 술집 안)

최형사가 전 소주병을 낚아채는 김형사.

김형사 : 형! 요즘 왜 그래?

최형사 :

김형사 :물론, 형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최형사 :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너도 날 의심 하나?

김형사 :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고, 술집 바깥으로 나가는 최형사.

(부둣가 술집 앞)

술집 앞, 선창에 서는 최형사. 담배를 꺼내 운다.

옆으로 다가온 김형사, 한동안 말없이 파도를 보다가.....

김형사 : 형! 이제 형수 그만 편안히 보내드리자. 형도 할 만큼 했어....

형수님도 형 원망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형도 이려고 살 순 없잖아?

최형사 :

김형사 : 그건 형 탓이 아냐! 자책하지 마!

김형사의 어깨를 툭툭 치고 조용히 돌아서 걸어가는 최형사.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김형사.

#62. 연립주택 3층 안/ 밤

장롱을 여는 민우. 수연의 옷이 걸려있던 자리가 비어있다.
민우의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린다.
서랍장과 화장대 밑에 있는 서랍장을 모두 꺼내보는 민우.
수연의 옷들이 빠져나간 빈 공간들이 보인다. 방바닥에 주저앉는 민우.
바닥에 흩어진 옷을 움켜쥐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신음 소리를 내지른다.

#63. 산부인과 병원/ 낮

(산부인과 병원 앞)

병원 앞에서 구겨진 약봉지를 들고, 병원 상호를 확인하는 민우.

(병원 안 대기실 카운터)

병원 대기실 카운터. 간호사4와 얘기를 나누는 민우.

민우 : 채수연씨 진료 카드를 좀 확인했으면 하는데요?

간호사4 : 무슨 일로 그러시죠?

민우 : 남편인데요....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간호사4 : (진료카드를 확인하다가 곤란한 표정으로) 저....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요.

민우 :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며) 왜요?

간호사4 : 이 환자분께서 아무에게도 보여 드리지 말라는 부탁을 하셨거든요.

민우 : (충분해서) 남편이 아내의 진료카드를 보겠다는데....안 되는 이유가 뭘니까?

간호사4 :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민우 : 이봐요? 나는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야!!! 그런데 왜 볼 수 없다는 거야!

주위에 있던 산모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바라보자.....

민우 : (혼자말로) 아이! 씨팔!

돌아서 나가는 민우.

#64. 몽타주/ 낮, 밤

(길거리/ 낮)

통행인이 많은 거리를 걸어오는 민우. 우울한 표정이다.

(대학교 앞 서점 안/ 낮)

#28의 대학교 앞 서점. 민우가 서점 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얘기를 한다.

민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주인은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며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다.

(포장마차 안/ 밤)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민우.

(길거리/ 밤)

민우가 술에 취해 반쯤 풀린 눈으로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는다.

지나는 행인과 어깨를 부딪치지만 계속 걸어가는 민우.

속이 좋지 않은 듯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가로수에 쪼그려 앉아 구토를 하는 민우.

민우의 시선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인다.

#65. 연립주택 3층 안/ 낮

옷을 입은 채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는 민우.

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얼굴에 비치자 머리가 아픈 듯 인상을 찡그리며 눈을 뜬다.

누워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이라도 하듯 주위를 둘러본다.

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아픈 머리를 흔들며 일어난다.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민우.

생수병을 냉장고에 다시 넣다가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라 냉장고 문도 닫지 않고,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열고 들어가 이것저것 뒤지다가 택배박스를 발견한다.

박스에 붙어 있는 주소지에서 '김예림'이라는 이름을 발견한다.

민우의 얼굴에 한 가닥 희망이 스친다.

#66. 다세대주택 안/ 낮

(다세대주택 골목길)

다세대주택들로 이어진 주택가 골목길.

(다세대주택 반 지하 계단)

민우가 다세대주택 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서 망설인다.

(다세대주택 예림의 집 문 앞)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방색 알루미늄 샷시 문 앞에 선다. 문을 두드리는 민우.

수연 : 예림이니? 너 이거 두고 나갔지?

수연의 목소리를 들은 민우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친다.

핸드폰을 들고 문을 열던 수연의 얼굴이 한순간 경직된다.

(다세대주택 예림의 집 안)

수연이 문을 열어둔 상태로 돌아서 들어간다. 수연을 따라 들어가는 민우.

민우 : 수연아!

민우가 등을 보이고 선 수연의 배를 본다. 임신복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걸로
보기에는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확인할 수 없다.
거실 한쪽에 있는 싱크대 앞에서 씻고 있던 그릇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연이....

수연 : 나...돌아가지 않아. 그러니 돌아가!
민우 : 내가 이렇게 빌게.....(민우가 무릎을 꿇고) 제발!
수연 : (돌아서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민우 :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제발 떠나지만 마!.....
수연 : (애써 눈물을 참으며 단호하게) 널 보고만 있어도 숨이 턱! 턱! 막혀....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젠 제발 날 내버려둬!!!.....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올려다본다.

민우 : 니가 날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하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수연 : 걱정하지 마! 애는 지웠으니까.

충격과 분노로 민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굳어진다.

수연 :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너 같은 자식 낳을까봐.....무섭고 두려웠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
민우 :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린다)
거짓말이지?... 그랬을 리가 없어..... 어떻게.....

수연이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민우가 수연의 앞을 막는다.
뒤로 주춤 물러서는 수연.
민우가 손을 앞으로 내밀며 다가가려 하자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든다.

수연 :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러운 손 치워!
민우 : 거짓말이라고 말해줘?.....그렇지!.....아니지!

민우가 실성한 사람처럼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다가가자 자신의 가슴에 과도를 갖다 대며
위협하는 수연. 주춤하는 민우. 더욱 절박한 심정이 된다.

수연 : (단호한 어조로) 사실이야!

얼굴표정이 갑자기 싸늘히 변하며 섬뜩한 기운이 감도는 민우.
한걸음 앞으로 다가간다.

수연 : (두려움을 느끼듯) 저리 비켜!!

수연은 비장한 얼굴로 자해라도 하려는 듯 과도를 든 손에 힘을 준다.

수연 : 돌아가지 않으면.....죽어 버릴 거야!

수연을 바라보는 민우의 얼굴에 광기가 어린다.
민우가 갑자기 달려들어 과도를 든 수연의 손을 잡아 옆으로 꺾는 순간 수연이 몸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민우와 함께 쓰러진다.
민우 위로 쓰러진 수연이 신음 소리를 내며 옆으로 힘없이 미끄러진다.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쓰러진 수연의 얼굴을 돌아보며 일어나는 민우.
민우의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린다.
수연의 배를 보는 민우. 임신복은 피에 젖어 붉게 물들고 있고,
수연의 배에는 과도가 꽂혀있다. 떨리는 손으로 과도를 뽑아 드는 민우.
수연의 다리 사이로도 양수가 터져 흘러내린다.

실성한 사람처럼 수연의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어보지만,
만지지 못하고 떨고만 있는 민우의 손.
이때, 문 바깥에 인기척 소리가 난다.

예림 : 수연아! 나 핸드폰 두고 나갔어!

황급히 냉장고 옆으로 몸을 숨기는 민우.
예림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민우의 신발을 보고....

예림 : 누가 왔나? 수연아!

주방 바닥에 쓰러진 수연을 발견하곤 혼비백산하여 수연에게 달려온다.

예림 : 수, 수, 수연아! 수연아!

믿을 수가 없는 듯 넋을 잃은 예림이 뭔가 이상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과도를 든 민우의 모습이 보인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예림,
또 다시 예림이 소리를 지르려하자 과도를 든 민우의 손이 예림의 배를 찌른다.
예림이 수연 옆으로 쓰러지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민우.

#67. 주택가 골목길/ 낮

실내복 차림으로 동네 슈퍼에 다녀오는 듯 검정색 비닐봉지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는 창원.
동네 골목길 코너를 돌다가, 코너를 돌아 나오던 민우와 어깨를 부딪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걷어가는 민우.

창원 : 어떤 십새끼야!...

민우는 계속 멀어져가고....창원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혼잣말로....

창원 : 어! 저 씹새 저거!!!!.....

#68. 몽타주

(모텔 안/ 낮)

커튼으로 완전히 밀폐된 어두운 모텔 방안에 쪼그려 앉은 민우가 벌벌 떨며.....

침대 옆의 전화기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전화가 울리자 떨리는 손으로.....몇 번의 벨이 울리고 난 후 전화를 받는다.

민우 : 어, 여보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는 민우의 얼굴이 조금 안정을 되찾는다.

-Dissolve-

(버스 안/ 밤)

버스 유리창에 비친 민우의 손. 불안한 듯 손을 허벅지에 반복적으로 문지른다.

손을 들어 바라보는 민우. 오른쪽 손가락 손톱 밑에 핏자국이 조금 남아있다.

-Dissolve-

(목욕탕 안/ 밤)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는 두 손. 카메라 멀어지면....

목욕을 하고 나온 말끔한 모습의 민우가 보이고, 더 멀어지면 목욕탕 평상이다.

#69. 경찰서 강력반장실 안/ 낮

감찰반형사1과 최형사가 마주 앉아 있다.

감찰반형사1 : 같은 동향도 아니고, 학연도 없고....그런데 저희한테 들어 온
제보에 의하면 이기철과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최형사 :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감찰반형사1 최형사의 단호한 대답에 서류를 몇 장 넘기며 말을 돌린다.

감찰반형사1 : 부인이 장기입원 중이라고 하던데....
병원비 부담도 만만찮게 들어가겠습니다....
최형사 :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최형사의 핸드폰이 울린다.

감찰반형사1 : 받으십시오!
최형사 : (마지못해) 여보세요?
조상태 V.O. : 나야, 조상태! 한번 만나지....
OOO으로 10시까지와....허튼 짓하면 알지?
최형사 : 알았다!

태연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 최형사.

감찰반형사1 : 며칠 전 이기철을 면회했다고 하던데....
최형사 : (표정이 굳어지며) 수사상 조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감찰반형사1 : 아무튼 좋습니다. 떨어져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70. 산동네 빌라촌/ 밤

산동네의 축대 위에 세워진 조그만 빌라.
김형사가 계단을 내려와 길 건너편에 세워진 차안으로 들어간다.
점점 인적도 끊기고, 새어 나오는 하품을 참지 못한 김형사가 차 밖으로 나와 체조를 한다.

빌라 쪽으로 다급히 걸어오는 운동화를 신은 남자.
빌라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본다. 남자를 주시하던 김형사.
황급히 운전대 밑으로 몸을 숨긴다. 계단을 올라가는 남자. 잠시 후 김형사가 뒤따른다.

김형사가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가자 나무 뒤에 숨어 있던 남자.....
몸을 날리며 담장을 넘어 도망친다. 뒤따르는 김형사.
남자가 코너를 돌아 같은 방향의 앞쪽 골목으로 뛰기 시작한다.
도망을 가던 남자 골목 코너로 숨은 후, 뒤를 엿본다. 텅 빈 골목..... 잠시 갈등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이때 골목 한쪽에서 김형사가 뛰쳐나와 남자를 덮치며 쓰러진다.

#71. 공사장/ 밤

공사 중인 건물 옥상,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
타워크레인에 거꾸로 매달린 최형사.
상태가 눈짓하자 타워크레인이 움직이며 최형사를 건물 바깥으로 밀어 넣는다.

최형사의 시선으로 외곽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아득히 내려다보인다.
타워크레인의 줄이 순간적으로 하강한 후 멈춘다. 공포로 신음을 내뿜는 최형사.
상태가 다가가 최형사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떼어준다.

상태 : (손수건을 꺼내 최형사의 땀을 닦아주며)
이런...이런... 그 용감하던 최형사가 식은땀을 다 흘리시고...
3년 동안 많이 허해지셨네...
(녹음기를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알아?
(침착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김현석이가 니들 두 새끼가 어떻게 해쳐먹었는지 여기 다 붙었어!
성질나면 확 까발릴 수도 있어!
최형사 : 그러면 너는 무사할 것 같나?
상태 : (최형사의 뺨을 툭툭 치다가 정차 세계 때리며)
니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뒤를 돌아서는 상태, 다시 돌아서며

상태 : 아, 차차차..하나가 더 있는데....
니 마누라 그렇게 만든 새끼!.... 누군지 궁금하지?

최형사의 두 눈이 번쩍 떠지며 상태를 노려본다.

상태 : 뭘 그렇게 놀래? 최형사께서 그 칸 강도새끼 하나
못 잡아서야 쪽 팔리지.....3년 동안 감방에서 썩은 나도 아는 사실을....

상태가 빙긋이 웃은 후, 최형사에게 다가가 컷속말로 속삭인다.

상태 :

최형사가 격렬한 몸동작으로 반응하자 더욱 재미있어 하는 상태.

상태 : 딱 일주일 주겠다.... 나 성질 좇같은 거 알지?
같이 감방에서 썩지 않으려면, 기철이 새끼한테 가서 전해!
감방에는 문이 있지만.... 무덤에는... 문이 없다고.....
(비열한 웃음을 웃으며 돌아서다가 다시 돌아서서)
아! 니 마누라는 내가 잘 돌봐줄게!!!
혹시 알아? 주사 한방이면 약 기운에 깨어날지.....
아니지!.....너희 두 새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씨팔년도
내가 같이 딸려서 보낼게.....외롭지 않게.... 좇같은 새끼야!!!

최형사가 다시 한 번 움부림친다.

#72. 경찰서 강력반 취조실 안/ 낮

형사3이 김형사와 강간범이 있는 취조실로 들어선다.

형사3 : 야! 김형사, 이 새끼 말로해서 안돼!!!
(커터를 꺼내 칼날을 앞으로 숙 꺼낸다.) 야, 이 새끼야! 옷 벗어!!!
이런 새끼는 확 잘라 버려야 돼!!!! 빨리 벗어!!!
김형사 : 뭐해 새끼야!! 빨리 안 벗고!

강간범이 당황해하며 엉거주춤 옷을 벗는 시늉을 한다.
형사3이 달려들어 강간범의 바지춤을 잡고 벗기려하자.....

강간범 :아....알았어요!..... 다 벗어요?
김형사 : 그래!!! 새끼야!

강간범이 엉거주춤 뒤로 돌아서며 바지를 내리자 팬티를 입지 않았다.

형사3 : 어라! 이 새끼 똥라! 너 똥스 어디 갔어?
강간범 : (바지춤을 올리며) ...지..집에요!
형사3 : 이런, 부지런한 새끼를 봤나?
강간범 : 그게 아니고....
김형사 : 똥스도 안 입었는데 그건 왜 달고 다니냐?
형사3 : 그래, 씨팔! 확 잘라버리자!

화가 난 강간범이 윗통을 벗어 던지며...

강간범 : 아이, 씨발! 벗으면 될 거 아냐?

취조실 밖에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심문과정을 지켜보던 형사1과 여대생.
형사1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여대생.

#73. 석재의 꼬치구이집, 거리/ 밤

(석재의 꼬치구이 집 안)

손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석재가 김형사가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로 맞는다.

석재 : 이게 누구야?
김형사 : 장사는 잘 되세요?
석재 : 그냥 그렇지 뭐!..... 이번에 한 건 했다며?

김형사 : 어떻게 아셨어요?

석재 : 운형사가 며칠 전에 다녀갔어!... 어떤 일로 날 다 찾아오고?

김형사 : 죄송합니다! 자주 들르지도 못하고.....

석재 : 반가워서 하는 소리야!!

김형사 : 선배님! 사실은 몇 가지 여쭙볼 게 있는데...

석재 : 그래, 잠깐만.....

안주를 요리해 손님 테이블을 오가는 석재와 혼자 맥주를 마시는 김형사.

(길거리)

석재의 가게를 나서는 김형사. 생각에 잠겨 거리를 걷는다.

석재 V.O : 유창원이 알지? 조상태 밑에 있는 새끼!

얼마 전에 날 찾아오긴 왔어! 그런데....그 새끼

최형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더라구.....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그나저나 최형사 잘 있지?

#74. 개인병실 안/ 밤

(병실 안)

미등만 켜진 실내, 케익에 초를 꽂고 불을 붙이는 최형사.

케익을 들고 침대로 다가간다.

최형사 : (이불속에서 손을 꺼내 잡으며) 오늘이 니 생일이야! 케익 예쁘지?

생일 축하 합니다....생일 축하 합니다.

사랑하는....(울먹이다가).....생일 축하 합니다.

병실로 들어오던 간호사1이 최형사를 보고는 조용히 나간다.

촛불을 붙여 끄는 최형사. 초를 뽑고 케익을 자르면,

케익 속에 조그마한 선물상자가 보이고.....

최형사 : 어?! 케익 안에 뭐가 있네.....뭐지?

상자를 열어보면 반지가 보인다.

(병실 앞 복도)

병실 문 유리로 안을 들여다보는 간호사1, 지나가던 간호사2도 병실 안을 들여다본다.

손에 반지를 끼워 주는 최형사.

간호사1 : 언니! 저 보호자분 너무 안됐어!....

간호사2 : 요즘 세상에 저런 남자 없지!....

반지를 끼워준 손을 다시 이불속에 집어 넣어주는 최형사. 울고 있다.

#75. 몽타주

(룸살롱 룸 안/교도소/감방 안/경찰서 화장실 안)

상태의 음흉하고 야비한 얼굴에서 Dissolve, 건네지는 돈뭉치, Dissolve,

#58에서 본 교도관의 얼굴, Dissolve, 교도소 내 세면장, 교도관이 한 수인의 손에 몰래 쥐어주는 바늘, Dissolve, 감방 안, 자고 있는 기철의 얼굴, Dissolve,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반사되는 바늘, Dissolve, 번쩍 뜨는 기철의 눈, Dissolve, 기철의 배꼽으로 들어가는 바늘, Dissolve, 끔찍도 못하고 파르르 경련을 뜨는 기철의 모습에서 카메라 부감으로 멀어지고, Dissolve, 공포와 역겨움이 가득한 최형사의 얼굴.....
카메라 다시 빠지면 수세식 번기에 토를 하고 있는 최형사의 모습이 보여진다.

#76. 부동산 안/ 낮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최형사와 입주자.

입주자 : 이사 나가는 날짜는 문제없겠죠?

최형사 : 네...

부동산 주인 : 그래도 운이 좋은 겁니다. 마침 이사 들어올 사람이 생겨서...

(서류를 챙겨주며) 금액은 이상 없으시죠?

최형사 : 네...(봉투를 주머니에 넣는다)

#77. 최형사의 아파트 안/ 밤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는 최형사.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의 지퍼를 채운다.

핸드폰이 울리자 조금 놀라며 번호를 확인한다.

최형사 : 어보세요?

여자 V.O : 저기 희망보육원인데요...

최형사 : 네, 그런데요?

여자 V.O : 원장수녀님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최형사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다.

#78. 지하철역 안/ 낮

#77에서 본 가방을 들고 최형사가 허둥대며 코인로커 앞으로 다가온다.

가방을 코인로커에 넣은 후 열쇠를 빼 자리를 뜬다.

#79. 고아원 내 성당 안/ 낮

성가대의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원장수녀님의 장례미사가 집전되고 있고, 최형사가 수녀님의 관 앞으로 다가가 성호를 긋는다.

#80. 고아원/ 낮

(고아원 복도 안)

회환에 잠긴 최형사가 복도를 걸으며 고아원 시설들을 둘러본다.

(고아원 사무실 안 / 고아원 사무실 앞)

최형사의 시선으로 문이 열린 사무실 안이 보인다.

사무실 안에는 경찰이 3세 정도의 남자 아이를 데리고 수녀님과 얘기를 하고 있다.

경찰 : 미아인지 버려진 건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수녀님 : (아이를 안으며) 이름이 뭐니?

경찰 : 아무튼 당분간 좀 알아주십시오. 확인절차가 있으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녀님께 인사하고 나가자 최형사의 시선으로 아이의 모습이 들어온다.

시선을 피하며 돌아서는 최형사. 복도에서 다른 아이가 최형사를 뺨히 쳐다보며 서있다.

어린 시절의 최형사가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최형사를 노려보고 있다.

#81. 농가(회상)/ 낮

(농가 마당)

마당을 가로지른 빨랫줄에 흰 이불을 널고 있는 어린 최형사의 엄마.

엄마는 입술 위쪽에 작은 점이 하나 있는 미인형의 얼굴이다.

엄마가 빨래를 널며 #3에서 최형사가 부른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부른다.

그런 엄마를 쳐다보는 어린 최형사.

안방문이 열리며 술에 취한 최형사의 아버지가 마당으로 주전자를 던지며

어린 최형사에게

아버지 : 술 받아와!

마당에 던져진 주전자를 줍는 어린 최형사.

빨래를 널고 있던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고,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최형사.

(시골 담장길)

시골 담장을 따라 막걸리를 담은 주전자를 들고 가는 어린 소년의 손이 보여 진다.

(농가 마당)

어린 최형사가 문 앞에 이르자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고 있다.

아버지 : 이 씨팔년!!! 이번에는 또 어떤 새끼랑 붙어먹다 온 거야?
말 못해!!! (계속 구타가 이어진다)

마당은 난장판이 되고,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사이, 엄마가 도망간다.
어린 최형사를 돌아보고 무언가 말을 하려 하지만 안타까운 얼굴로 돌아서 달려가는 엄마.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몰고려미 쳐다보는 어린 최형사.

(농가 부엌 안)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는 어린 최형사. 찬장 위에 놓아둔 쥐약을 어쩔사리 내린다.
주전자 뚜껑을 열고 갈등하는 어린 최형사.

#82. 고아원/ 낮

(고아원 사무실 앞)

순간적으로 놀라는 최형사. 어린 최형사가 울먹울먹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당황하는 최형사.
이때 수녀님 나오며.....

수녀님 : 무슨 일이시죠? (규민에게 다가간다.)
최형사 : (돌아보며) 아..아닙니다.....
수녀님 : (아이를 보며) 규민아!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최형사가 다시 뒤를 돌아본다.

울고 있는 아이는 어린 최형사가 아니라 다른 아이다.
서둘러 인사를 하고 현관입구로 향하는 최형사를 바라보는 수녀님과 아이.

#83. 지하주차장/ 밤

(지하주차장 안)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상태의 차가 미끄러져 들어온다.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주차할 곳을 찾다가 차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막고 주차라인 밖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선다. 상태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다. 차에서 내리는 상태부하1.

상태부하1 : 어떤 개새끼가 이따위로 주차를 하고 지랄이야!

(건물 사무실 안)

(Insert) CCTV 화면이 설치된 사무실에는 '순찰 중'이란 안내판만 있고 비어 있다.

(지하주차장 안)

상태부하1이 차로 다가가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밀어본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아 앞으로 밀리는 차량.

이때 병거지 모자를 쓴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 쇠파이프로 상태부하1을 내리친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는 상태부하1.

아직도 자고 있는 상태. 옆으로 다가온 병거지모자, 손으로 차문을 두드린다.

잠에서 깨는 상태. 주차장인 걸 확인한다.

상태 : (운전석에 부하가 없는걸 보고) 이 새끼 어디 갔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병거지모자가 쇠파이프로 상태를 내리친다.

#84. 야산/ 밤

병거지모자가 상태의 머리를 계속 내리치다가 상태를 내려다보면....

상태 : (말하기도 힘겨운 듯) 유!....차....으...워.....원(고개가 꺾인다)

상태에게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상태의 목을 쥐고 있던 손을 놓는 병거지모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옆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땅에 박는 상태.

#85. 과수원/ 새벽

(과수원)

어둠을 밀어내며 여명이 움트는 이른 새벽. 산자락 아래로 열린 안개가 퍼져있다.

병거지모자가 산 아래에 있는 과수원으로 내려오고 있다.

옷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고, 오른손엔 피로 얼룩져 있다.

(폐가)

과수원 안에 있는 폐가 같은 곳에 다다르는 병거지모자.

조심스레 폐가 이곳저곳을 둘러보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듯 처박아 둔

농기구들과 과일 박스 등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마당에 있는 옛날식 펌프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가는 병거지모자.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몇 번 아래위로 움직여 보지만 물이 나오기는커녕

'꺼억 꺼억'하는 마찰음만 들려온다.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는 병거지모자.

촌노 한명이 긴 장화와 모자를 쓰고 삼을 어깨에 맨 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서 있다.

서로 당황한 두 사람 사이에 침묵과 긴장이 흐른다.
촌노가 삼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치다가 굼뜬 동작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한다.
당황한 모습으로 촌노를 뒤따르는 병거지모자.
촌노가 돌부리에 걸려 힘없이 과수 사이로 쓰러진다.
삼으로 촌노를 내리치려다 망설이던 병거지모자, 삼을 내리친다.

#86. 야산/ 낮

경찰 파트롤카와 앰블런스, 기자들, 부검의, 탐문검색을 하는 경찰들,
동네 주민들이 야산 아래 과수원에 모여 있다.

사건현장 주변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노란색 띠가 둘러져 있고 관할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들이 촌노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강력반장과 김형사가 사건현장을 감시하는 경찰의 제지에 신분증을 보이며 들어온다.

강력반장 : 최형사는 연락됐어?
김형사 : 네....이쪽으로 바로 오고 있습니다....
반장님! 이기철과 조상태가 당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력반장 :

조사 중이던 관할 경찰서 형사 한명이 강력반장을 알아보고 다가온다.

조형사 : 오랜만입니다. 반장님!
강력반장 : 수고 많네... (김형사를 보며) 인사하지! 이쪽은 김형사.
조형사 : (김형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조경태입니다.
김형사 : 고생이 많으시네요.
강력반장 : 누가 발견했지?
조형사 : 관할 파출소 순경입니다.
과수원 주인인 할아버지의 신고로 주변을 수색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강력반장 : 신고라니?
조형사 : 05시 반경 목격자인 동네 노인이 일하러 나왔다가 범인을 직접 목격했고...
목격자 말로는 범인이 자신도 살해하려다가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신분증이나 지갑 등이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단순 강도사건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여기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복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일단 현장부터 둘러보시죠?

상태가 양매장된 주변으로 경찰과 형사들이 증거품을 수집하기 위해 수색 중이고.....
부검의와 형사들이 파헤쳐진 흙무덤 앞에서 사진촬영과 사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최형사가 지켜보고 있다.

상태의 얼굴은 형체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부검의와 사진을 찍는 형사도 끔찍함에 다들 굳은 표정이다.

형사1 : (짙그린 얼굴로) 완전히 목사발을 만들어 놔구만!....

강력반장, 김형사, 조형사가 함께 멀리서 사건현장으로 다가온다.
잡목이 우거진 주변상황을 둘러보던 최형사가 반장을 보며 다가간다.

#87. 지하 주차장 안/ 낮

주차장 현장에 보이는 현장 검증 스프레이.
주차라인 밖에 세워진 차량 번호를 적는 김형사.
세워진 차안을 검사하는 김형사와 최형사. 옆에 수위아저씨가 서 있다.

김형사 : 이 차 언제부터 이렇게 서 있었습니까?

수위 :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사 : (천정에 부착된 카메라를 가리키며)

저기 방범용 카메라에 녹화된 테이프는 보관하고 있죠?

수위 : 일주일만 안 됐으니까 있을 겁니다.

#88. 외곽도로, 차안/ 밤

정차된 차안, 유창원과 톨마니 3명이 앉아 있다.

톨마니1 :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창원 : 아이! 씨팔!! 나도 몰라!

내가 따로 연락할 때까지 당분간 잠수 타!

톨마니2 : 형님! 기철이파 새끼들 확 담귀 버릴까요?

창원 : 야, 이! 미친 새끼야! 누구 짓인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냐!!

(흔젯말로) 좃도!.... 차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톨마니1,2 : 네?

창원 :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조용해 질 때까지 잠자코 있어!!!

#89. 경찰서 영상실 안/ 낮

녹화된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돌려보며 확인하는 김형사.
화면 속에는 범인의 뒷모습만 찍혀 누군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최형사가 들어온다.

최형사 : 뭐 좀 알아냈어?

김형사 : 카메라 위치까지 미리 파악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은데요.
아무런 말없이 나가는 최형사를 이상한 느낌이 들어 돌아다보는 김형사.

#90.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낮

수첩을 꺼내들고 전화통화를 하는 김형사.

김형사 : 그래? 확실한 거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강력반장에게) 반장님! 과학수사대에서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력반장 : 그래!.....최형사는 뭐 하고 있어?
김형사 : 유창원이 뒤를 쫓고 있겠죠?

#91. 창원의 오피스텔 안/ 낮

창원이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뭔가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다.

#92. 강력반사무실 안, 창원의 오피스텔 안/ 석양

형사1과 김형사가 늦은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듯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들어온다.
김형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형사1은 자기자리로 돌아간다.

김형사 : (책상에 앉으며) 여보세요?
창원 : 김종현 형사시죠?
김형사 : 누구세요?
창원 : 나 유창원이요! 좀 만납시다.
이기철, 조상태 살인사건에 대한 솔깃한 정보가 있습니다!
김형사 : ...원하는 게 뭐냐?
창원 : 상태형님 차 견인해간 폐차장에서 만납시다.
김형사 : 거긴 왜?
창원 : 그건 와 보면 알거고.....아무도 모르게 혼자 와야 합니다.
김형사 : 알았다. 몇 시에?
창원 : 폐차장이 어딘지 알아야 시간을 정할 거 아닙니까?
김형사 : (고민하다가)OOO동에 있는 폐차장이다. 몇 시?
창원 : 거기까지 갈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깐 8시 반 어떨습니까?
김형사 : 알았다.

전화를 끊고 김형사가 급히 사무실을 나서는 걸 형사1이 의아하게 바라본다.

#93. 개인병실 안/ 석양

창밖에서 바라본 병실. 최형사가 밖을 내다보고 있다.
저녁노을과 하나둘씩 켜진 불빛들에 중첩된 아내의 모습이 애처롭다.

#94. 폐차장/ 밤

상태의 차 안에서 창원이 다급한 얼굴로 서두르며 조수석의 좌석 뒷면을 칼로 찢어
그 안에 숨겨뒀던 마약을 두 봉지 꺼낸다.
마약을 넣었던 곳에 사진 몇 장을 넣고 주변을 둘러본 후 급히 사라지는 창원.

(시간경과)

김형사가 폐차장에서 창원을 기다리며 계속 시간을 확인한다.
핸드폰의 시간이 8시 43분을 가리킨다.

김형사 : 이 새끼는 왜 안와?

상태 차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는 김형사.
조수석의 좌석 뒷면이 칼로 찢어져 있다. 놀라 조수석의 뒷좌석을 살피는 김형사.
사진 몇 장이 나온다. 차에서 나와 조금 밝은 곳에서 사진을 살펴보는 김형사.
#7의 방파제에서 찍은 최형사와 기철의 모습과 최형사와 기철, 현석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다. 아연실색하는 김형사.

김형사 : 씨팔! 이거 뭐야!

김형사가 흥분한 모습으로 씩씩거리며, 급히 폐차장을 나간다.

#95. 차 안/ 밤

운전 중인 김형사가 핸드폰의 단축키를 눌러 최형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신호음만 갈뿐 받지 않는다.

#96. 오피스텔 안/ 밤

창원이 초초한 모습으로 가방 안에 마약과 옷가지 등을 챙기고 있다.

#97. 경찰서 현관/ 밤

현관으로 나오며, 전화 단축키를 눌러 최형사에게 전화를 거는 김형사.

김형사 : 에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받아?

#98. 몽타주/ 밤

(바닷가 절벽 위 차 안)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진 차. 최형사가 소주를 병 채로 나발 분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운다.

(도로)

운전 중인 김형사. 핸드폰으로 최형사에게 전화를 건다.

(바닷가 절벽 위 차 안)

운전석 옆에 놓아둔 최형사의 핸드폰이 울리지만 받지 않는다.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급하게 U-턴을 하는 김형사.

(바닷가 절벽 위 차 안)

노래가 끝나자 오디오를 끄고 조용한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권총을 꺼내는 최형사, 두려움에 떨며 권총을 자신의 입속으로 깊숙이 집어넣는다.
두 눈이 튀어 나올 듯 공포에 떨며 방아쇠에 손이 가는 최형사.
몸 전체가 떨리며, 갑자기 구토가 올라와 권총과 함께 토하는 최형사.
차 밖으로 기어 나와 막힌 숨을 쉬기 위해 '꾸억꾸억' 토약질을 하는 최형사.

#99. 최형사의 아파트 안/ 밤

김형사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스위치를 올리면 텅 빈 상태다.

#100. 농가/ 낮

(농가 담장 길)

담장을 따라 주위를 살피며 걷어가는 최형사.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한 농가(#81의 농가)에 다다른자, 담장 너머로 안을 살피는 최형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호흡을 한번 가다듬은 후 문으로 들어간다.

(농가 마당)

마당에 흩어진 가재도구와 마루에 술상이 얹어져 있는 게 보인다.
마당에 멈춰 서서 다시 한 번 씬 호흡을 한다.
권총을 꺼내 총알을 확인하는 최형사.

부엌문이 반쯤 아가리를 벌린 채 바깥의 밝음을 밀어내고 있다.
최형사가 권총을 두 손으로 다잡고 문 안쪽을 살핀다.

(농가 부엌 안)

어둠 속에 잠긴 부엌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아무도 없다.
최형사의 눈썹으로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고여 맺혀 있다.

(농가 마당)

안방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최형사.
안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 듯하다.
바닥에 흩어진 식기들을 피해 조심조심 안방 쪽으로 다가가는 최형사.

(농가 안방 안)

권총을 두 손으로 겨누며 문을 발로 차고 급습하는 최형사.
눈앞의 광경에 경악한다. 피를 토한 시체가 방바닥에 누워 있다.
시체는 베개로 얼굴이 가려진 채로 있고....
곰찍한 듯 주춤거리며 다가가 베개를 발로 찢히는 최형사.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 때문에 잘 분간이 안 가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난다.
경악하는 최형사. 시체의 얼굴은 최형사 바로 자신이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지르는 최형사.

#101. 경찰서 숙직실 안/ 새벽

가위에 눌린 듯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는 최형사.
식은땀이 얼굴로 흘러내린다.
동그랗게 뜬 눈은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주위를 낯선 곳처럼 둘러본다.
손으로 목과 가슴을 쓸어내리는 최형사.

#102. 경찰서 화장실 안/ 새벽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 최형사.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본다. 낯지 않은 수영이 까칠하다.
하나 남은 형광등마저 깜빡깜빡한다.
형광등을 올려다보다가 거울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최형사.
순간 시체가 된 자신의 얼굴이 거울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최형사의 주먹이 거울을 친다. 몇 조각으로 금이 가는 거울.
금이 간 거울 속으로 최형사의 얼굴이 비친다. 썩한 눈이 도드라져 보인다.

#103. 개인병실 안/ 밤

김형사가 병실 간호사 카운터에서.....

간호사1 : 저녁때 잠깐 계셨다가 가셨는데.....

김형사 :(점점 불길한 예감에 표정이 굳어진다)

#104. 경찰서 복도 안/ 새벽

화장실에서 나오는 최형사. 어디로 발길을 정해야 할지 망설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력반 사무실 방향으로 걸어간다.

출입구가 가까워지자 보초를 서던 순경이 경례를 한다. 무신경한 표정으로 눈길만 준다.
그런 최형사를 결눈질로 훑쳐보는 순경. 잠시 멈춰 서서 밖을 보는 최형사.
최형사의 오른손에 피가 묻어 있다.
어둠 속에 잠긴 주차장이 보인다. 강력반 사무실로 들어가는 최형사.

#105.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새벽

강력반 사무실도 평소와는 달리 한산하다.
워드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형사2가 최형사를 보며....

형사2 : 애새끼들이 휴업을 했나, 왜 이렇게 조용해?

대답도 없이 자기 자리로 가는 최형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는다.
눈을 감고 고개를 의자에 기대는 최형사. 지쳐 보인다.
형사2가 그런 최형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

(시간경과)

깜박 잠이 들었는지 놀래서 눈을 뜨는 최형사. 사무실을 둘러본다.
형사2는 일을 마쳤는지 보이지 않고.....
최형사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 병거지 모자다!!!!
카메라가 병거지모자의 정면으로 돌아가면.....
병거지 모자를 벗는 민우의 모습이 나타난다.

민우를 보고도 한참을 눈도 뜨지 않은 채 미동이 없는 최형사.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최형사를 바라보는 민우.
최형사가 눈을 감은 채 조용한 목소리로 민우에게 묻는다.

최형사 : (짜증난 목소리로) 당신 뭐야?

민우 : (조용한 목소리로) 여자를 때렸습니다.
민우의 대답이 귀에 거슬린 듯 인상을 쓰며 눈을 뜨는 최형사.
직업적인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우를 쏘아본다. 담배를 꺼내 무는 최형사.

최형사 : 누굴 때렸다고?

민우 : 창녀였습니다.

최형사 : 왜?

민우 :

최형사 : 여기까지 끌려왔다면 그만한 짓을 했을 것 아냐?

민우 :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최형사 : 뭐!.....오입하러 갔으면 조용히 재미나 보고 갈 것이지

여긴 왜 기어 들어와!!! 나, 지금..... 당신하고 말장난 할 기분 아니야.....

민우 : 말장난이 아닙니다!

최형사 : (목소리가 높아진다) 당신,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흥분해서 씩씩대는 최형사와는 달리 민우는 여전히 슬픈 표정을 잃지 않고 있다.
최형사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내려놓으며....

최형사 : 원하는 게 뭐야? 한번 뺨 달라는 거야....

아니면 합의를 볼 테니 선처해 달라는 거야?

민우가 울 듯 한 눈빛으로 최형사를 바라본다.

#106. 창녀촌 골목길(회상)/ 밤

민우의 시점으로 술에 취한 듯 창녀촌의 거리가 흔들린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던 여자들도
민우가 지나가자 붙잡지 않고 피하는 듯 옆으로 비켜선다.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여자들.
하나 같이 풍선껌을 부풀려 터트리는 여자들의 모습들이 흘러간다.
카메라가 멈추고 어느 가게 앞의 의자에 앉아 있는 창녀에게 다가간다.
카메라가 다가가자 풍선껌을 터트리는 창녀. 입술 윗 쪽에 점 하나가 있다.
창녀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민우.

#107. (회상)창녀촌 밀실 안/ 밤

웅환적 분위기의 밀실. 침대 위로 내몰리 듯 던져지는 창녀.
술에 취한 민우의 시점을 반영하듯 밀실이 왜곡되어 보여 지고...
짧은 미니스커트 사이로 창녀의 팬티가 보인다.
다리를 벌린 자세로 그대로 가만히 앉아 민우를 보는 창녀. 풍선껌이 부풀었다 터진다.

민우가 한쪽에 있던 의자에 앉는다.

천정을 보며 다시 풍선껌을 부풀리는 창녀.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풍선껌이 터진다.

창녀가 민우를 보며.....

창녀 : 오빠 모해? 옷 안 벗고..... 빨랑 하자!

민우 : 그냥 애기나 좀 하자.....

창녀 : 오빠! 나 오늘 몇 당 옷 뒀거든.....

그러니까 우리 얼른 하고 가자!.....왜? 내가 맘에 안 들어?.....

그럼 다른 애 부르든지.....꿀에....(풍선껌을 다시 부풀리는 창녀)

창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목을 낚아채며 창녀의 얼굴에 있는 점을 만진다.

민우의 손에 묻어나는 검정색 루즈. 창녀의 입술 위에도 검정색이 번져있다.

창녀 : 아이! 씨팔! 재수 없게!!! 뭐야....

민우가 창녀의 얼굴을 마구 때린다.

#108.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새벽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다.

최형사 :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쇼해?!!

민우 : 정말 애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최형사 : (귀찮은 듯) 애기만 하려는 사람이 창녀촌엔 왜 기어 들어가?

당신 사이코지?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최형사의 얼굴을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민우 : 제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속에 있던 말을 하고나면

막혔던 가슴이 조금이라도 후련해 질 것 같아서요...

최형사 : 당신 눈에는 형사들이 쓰는 조서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나불대는 헛소리나 받아쓰는 줄 알지?

민우 : (담담하게)...아니면 다행이구요....

화가 난 최형사가 민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친다.

최형사 : 야! 여긴 경찰서야!....

민우가 최형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민우 :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형사가 어이없는 듯 등을 의자에 기대며 담배에 불을 붙인다.

최형사 : 그럼 애기나 하지 왜 때렸냐?

민우가 초연한 표정으로 최형사를 바라본다.

민우 : 죽었습니다.

최형사 : (픽 웃으며) 그래서.... 그 창녀를 죽였다는 거냐?

민우 : 아뇨...

최형사 :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 씨팔! 지금 나하고 말장난 하자는 거야?
누굴 죽였다는 거야?!!

담담한 표정으로 최형사를 올려다보는 민우.

#109. 경찰서 전경/ 새벽

(경찰서 전경)

어둠에 잠긴 경찰서 전경. 텅 빈 주차장.

(경찰서 안 복도)

경찰서 복도 유치장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순경이 무료하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

#110.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새벽

벽에 걸린 시계가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다.

민우가 무릎 위에 모아 둔 두 손 중 오른손을 바라보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듯 눈을 감는다. 그런 민우의 표정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최형사.

이윽고 민우가 눈을 뜨고 차분한 눈길로 최형사를 바라본다.

민우 :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최형사 : (조금 황당한 표정으로) 뭐?

(호기심과 의구심이 묻어나는 눈길로) 죽인 이유가 뭐지?

민우 : (최형사의 생각을 읽는 듯한 시선에서 눈길을 내리며)

처음부터 죽이려던 건 아니었고....우발적인 총동 때문이었습니다.

최형사가 몸을 의자 뒤로 젖히며 빈정대듯.....

최형사 : (코웃음을 치며) 우발적인 총동이라...

민우 : (감정이 북받치듯)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최형사 : (찬찬히 민우를 관찰하며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때가 언제지?

민우 : (어느 듯 두 눈이 조금 충혈 되어있다.) 3년 전 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최형사 뒤쪽으로 난 창을 통해 어둠을 응시하는 민우.

최형사는 그런 민우의 모습을 주시하다가 침묵을 깨며 입을 연다.

최형사 : 이제 와서 자수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물어 둘 수도 있었을 텐데?

민우 : 물어두고 싶었죠. 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데.....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형사 : 왜?

민우 : (최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사람이니까요!

최형사 : 양심은 있다 이거냐?

죄를 지었으면 벌은 받아야지.....어떻게 죽었지?

민우 :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죽었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담배를 꺼내 피우진 않고, 필터부분을 아래로 하여 책상 위를 두드리는 최형사.

민우 : 전! (손을 펴 보이며) 이 손으로 분명히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최형사 : 여긴, 죄를 고해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곳이야....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 최형사.

최형사 : 당신 이름!

#111. 석재의 꼬치구이집 안/ 새벽

석재 : 용준이 알지? 그 새끼 요즘 OO룸에서 일하고 있어.

그 새끼라면 창원이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모르겠다.

석재의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뛰어 나가는 김형사.

석재 : 야! 김형사!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석재가 걱정스런 얼굴로 김형사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112.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새벽

최형사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인다.

민우 :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 본적이 있습니까?

최형사 : (느닷없는 질문에 조금 당황하며)

사랑? 범인을 죽도록 사랑해 본적은 있지....

그게 형사의 사랑이야.....

민우 : ...범인 입장에선 지독한 사랑이겠네요...

민우를 보는 최형사의 얼굴에 심적 동요가 인다.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눈길로 최형사를 바라보던 민우가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113. 룬살롱, 비상계단/ 새벽

(룬살롱 안 복도)

김형사가 다급한 얼굴로 누군가를 찾으며 룬의 문을 하나하나 열며 확인한다.

룬에서 나오던 용준을 발견하는 김형사. 달려가면 용준도 비상계단으로 도망간다.

(비상계단)

계단에서 잡히는 용준. 김형사가 용준의 목살을 잡는다.

김형사 : 너 유창원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지?

용준 : 아이, 씨팔. 내가 네비게이션이야? 왜 다 나한테만 그래?

김형사 : 말해! 새끼야!

용준 : 아, 알았으니까 이거 좀 놓고 얘기합시다.

용준이 옷을 찢는 척 하다가, 김형사를 뺨다 걷어차는데....

김형사가 옆으로 살짝 피한다. 김형사의 주먹이 용준의 안면으로 날아간다.

#114.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새벽

카메라가 벽시계를 향해 다가가면 3시 52분을 가리키던 시계 바늘이 3시 54분으로 변한다.

최형사 : 결혼까지 했으면 해피엔드 아닌가?

민우 : 저도 그렇게 모든 게 잊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최형사 :

민우 : 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여)

이 더러운 손이 그마저도 집어 삼켜 버렸으니까요!!

최형사가 앉아 있던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깨트린다.

책상 뒤쪽 창가로 다가가는 최형사.

창밖은 철축 같은 어둠이 서서히 밀려나는 듯 사물의 윤곽들을 조금씩 토해내고 있다.

창밖을 응시하는 최형사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친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민우의 모습도 최형사의 모습 속에 중첩된다.

#115. 경찰서 복도 안/ 새벽

형사2가 졸린 눈을 하고 하품을 하며, 숙직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온다.
맨발에 신은 슬리퍼 끄는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길게 이어진다.

#116. 경찰서 화장실 안/ 새벽

목을 좌우로 꺾으며 세면대 앞으로 다가서는 형사2.
형광등 때문에 눈이 부신 듯 눈을 찡그린 채 손을 씻고 거울을 본다.
무언가에 맞아 금이 간 거울이 보인다.

형사2 : 어떤 새끼야! 이거....하여튼 개새끼들!
요즘은 경찰서가 지네 집 안방인줄 알아요.....

#117.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새벽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복도에서 형사2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형사2 V.O : 야, 임마! 화장실 거울 어떤 새끼가 깬어?
순경 V.O : 네?
형사2 V.O : 근무 똑바로 서란 말이야!

멀어져가는 형사2의 발소리가 적막 속에 점점 사라진다.
담배를 거꾸로 들고 책상 위를 두드리는 최형사.
습관적인 듯 담배를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살짝 찍어 입에 문다.
그런 최형사를 조용히 주시하는 민우.

민우 : 특이한 버릇이네요!....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체부위가 손이죠.
그러니까 손이 뭘 하는지도 모르죠.
최형사 : (놀라며, 민우를 바라본다.) 너 뭐야?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야?

최형사가 갑자기 일어나 민우 앞으로 달려가 민우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다.
앉은 자세에서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민우.

(경찰서 안 복도)

(Insert) 보초를 서던 순경이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강력반 사무실 쪽을

힐끗 바라본다.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잠시 누운 자세로 최형사를 쳐다보는 민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오른다.
최형사, 자기 자리로 다가가 앉으며 민우를 돌아본다.

최형사 : 지금의 니 처지를 망각하지 마라.
여긴 경찰서고....넌 범죄자야!!!!....

입술에 묻은 피를 닦으며 최형사를 올려다보는 민우.

민우 : 1시간 안에....당신은 나를 죽이게 될 꺼야!!!!

#118. 창원의 오피스텔 안/ 새벽

김형사가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온다.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면.....
마약 봉지를 입에 문 채로 죽어있는 창원의 모습이 드러난다.
창원 주변에는 마약과 피로 뒤범벅 되어있다.

김형사 : 야! 유창원!!!

창원의 시체를 본 김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공포가 가득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는 김형사. 황급히 오피스텔을 나간다.

#119. 경찰서 숙직실 안/ 새벽

자고 있던 형사2의 핸드폰이 울린다. 짜증스런 얼굴로 전화를 받는 형사2.

형사2 : 여보세요?

김형사 V.O : (다급한 목소리로) 선배님! 종현입니다.

혹시 최형사님 무슨 연락 없었습니까?

형사2 : 사무실에 있는데 왜?

어디서 술을 처먹었는지 지금 뻘이 되서 사무실에서 자고 있다.

전화가 뚝 끊어지자, 짜증스런 얼굴로 다시 돌아누우며 이불을 뒤집어쓰는 형사2.

#120.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새벽

민우 : 난 정말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지독할수록, 그 대가는 점점 가혹하게 다가오더군요.

한번쯤! 단 한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최형사 : (자조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겠지.....

담담한 민우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변해가는 민우의 얼굴.

민우 : 집착? 집착이라...
그럼 집착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자를 강간할 수도 있겠네요?

최형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며 넋이 나간 듯한 모습으로 변한다.

#121. 공사장(회상)/ 밤

#71의 상황.
상태가 창원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은 후, 최형사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인다.

상태 :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데...그렇게 예쁜 마누라를 왜 죽이려 했냐??
그것도 형사가?...바람이라도 피웠나보지?

최형사가 격렬한 몸동작으로 반응하자 더욱 재미있어 하는 상태.

#122.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새벽

불안한 눈빛으로 책상 위를 멍하니 바라보는 최형사.
입술에 묻은 피를 휴지로 닦아내는 민우.

민우 : 그거 알아? 피는 닦으면 지워지겠지,
하지만 휴지에 묻은 피는 지워지지 않아...

최형사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벌벌 떨기 시작한다.

#123. 다세대주택(회상)/ 낮

#66의 장소
김현석이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와 떨어뜨리고 간
과도에 남은 지문과 냉장고 부근을 닦아내고...
안방과 집안 여기저기를 뒤진 흔적을 남기기 위해 서랍과 장롱 문등을 헤쳐 놓고
금품 등은 주머니에 넣는다.

#124.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도로, 복도, 현관/ 새벽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최형사의 책상 서랍 맨 윗칸이 반쯤 열린 상태로 보인다.
서랍 안엔 최형사의 권총이 들어 있다.

민우 : (최형사의 불안한 듯 흔들리는 눈길을 바라보며)
한동안 묻혀 졌던 그 비밀이 유창원이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고통에 일그러진 최형사의 얼굴에서 평온한 민우의 얼굴로 화면이 전환된다.

민우 : 지금쯤이면 김형사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야.
모든 게 완벽하려면 김형사도 처치해야지, 안 그래?

(도로)

(Insert)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김형사.
직진신호를 받은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정거한다.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최형사의 책상서랍이 반쯤 열려있고, 권총이 보인다.

민우 : 니가 못하면,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어?
최형사 : 안돼!!!! 그건 안돼!!
(서랍속의 권총을 꺼내 민우를 겨누며) 누구냐, 너는?
민우 : 나?... 니가 지워버리고 싶은 너의 기억이지.....
최형사 : (권총을 민우에게 겨누며 별떡 일어선다.)
개소리 하지 마! 난 널 몰라!!
민우 : 부정하고 싶겠지, 그래! 그게 바로 니 모습이야! 넌 언제나 그랬으니까!!
최형사 : (식은땀을 흘리며 권총을 겨누는 손을 심하게 떨며)
너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민우 : 나를 죽여.....그래야 니가 편안해질 테니까!!!

(경찰서 안 복도)

(Insert) 보초를 서고 있던 순경이 강력반 사무실에서 고탈소리가 들려오자,
사무실 쪽을 쳐다본다.

(경찰서 현관)

(Insert) 현관 앞에 급정거하는 김형사의 차.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앞에 있던 민우가 별떡 일어서며, 두 팔을 벌리며 최형사 앞에 당당히 선다.
최형사가 민우의 이마 중앙에 권총을 겨눈다.

민우 : 그 방아쇠만 당기면 돼! 무슨 미련이라도 남았나?
난 두렵지 않아.... 나를 쏘는 순간 모든 게 편안해 질 거야!....
그러니 어서 쏘! 어서 쏘라구!!
이것만이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너나 나나....

(경찰서 안 복도)

열려진 문틈으로 보이는 사무실 안에서 최형사가 자기머리에 권총을 겨누며 발악을 하고 있다. 깜짝 놀란 얼굴로 벽 쪽으로 몸을 피하는 순경.
순경이 사색이 된 얼굴로 사무실 안을 가리킨다.
김형사가 순경을 밀치며 사무실 안을 본다. 충격을 받는 김형사.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최형사의 얼굴이 분노와 두려움, 공포로 거의 미쳐버린 것처럼 보인다.
김형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김형사 : 민우형!!!! 안 돼!!!

최형사의 총구가 민우에서 김형사 쪽으로 겨눠졌다가 다시 민우 쪽으로.....
다시 김형사 쪽으로 다시 민우 쪽으로 이동한다.

최형사 : 그래!!! 널 죽이고 나도 이젠 편안해지고 싶어!.....팡!!!!

최형사 자신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반대편 머리를 뚫고 피를 튀기며 지나간다.
옆으로 몸이 기울어 최형사의 슬픈 얼굴.

(Insert, 스피디한 몽타주)

(#66 다세대 주택 예림의 집 안)

수연 : 너 같은 자식 낳을까봐....무섭고 두려웠어!

최형사 : 거짓말이지?

(최형사가 다가가려 하자 싱크대위의 있던 과도를 집어 드는 수연.)

수연 : 그 더러운 손 치워!!!

(#67 골목길)

(골목길 코너를 돌며 창원과 어깨를 부딪치며 지나가는 최형사.)

(#68 모텔 안, 전화를 거는 최형사.)

최형사 : 부탁이 있어.

(도로, 운전하는 현석과 그 뒤에 앉아 전화를 받는 기철.)

기철 : 알았어, 내가 다 처리해줄게.

(#84 야산, 상태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는 최형사).

최형사 : 그 새끼가 누구야? 말해!

(#85 폐가)

(힘없이 과수 사이로 쓰러진 촌노를 삼으로 내리치지 못하고 갈등하는 최형사.)

(창원의 오피스텔 안)

(병거지 모자를 쓴 최형사가 머그잔으로 창원을 내려친다.)

(#107창녀촌)

(창녀의 얼굴을 마구 때리는 최형사)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평온한 표정의 최형사.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다.

놀란 눈으로 망연자실한 김형사.

눈앞의 광경에 사색된 얼굴로 가까이 오지 못한다.

최형사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최형사의 책상 아래로 흘러간다.

#125. 경찰서 취조실 안/ 몽타주

(취조실1 안)

감찰반형사1,2가 국과수 지문감정 서류와 혈흔검사 서류를 검토하며, 회의를 하고 있다.
깍지 않은 수염으로 까칠해진 강력반장.

감찰반형사1 : 조상태 피살사건현장에서 최형사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살까지 할 땐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강력반장 : (화가 난 얼굴로) 당신들이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니까 자살한 거 아냐!!!

(취조실2 안)

김형사가 감찰반형사2에게 취조를 받고 있다.

감찰반형사2 : 파트너니까 최형사의 최근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거 아닙니까?

김형사 : 모릅니다.....

감찰반형사2 : 당신들! 이렇게 감싼다고 우리가 못 밝혀낼 거 같아!!!

#126. 개인병실 안/ 낮

최형사가 Fade In 되며 수연의 침대 옆에 앉은 자세로 나타난다.

최형사 : (울면서) 그때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내 운명이었나 봐.....
이젠 니 곁을 정말 떠날 게.... 그러니까 아프지 마!
널 용서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까?

최형사가 고개를 묻고 통곡한다.
눈을 뜨고 있던 수연의 한쪽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른다.
이불속, 반지를 낀 수연의 손가락이 무언가를 움켜잡으려는 듯 가늘게 움직인다.
최형사는 다시 Fade Out 되고 병실만 남는다.

#127.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안/ 석양

강력반장이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담배를 문다.
라이터가 없자 책상 서랍을 여는데, 못 보던 봉투 하나가 있다.
봉투를 열어보는 강력반장. 편지와와 코인로커 열쇠가 있다.

최형사 V.O : 반장님! 반장님께 짐만 남기고 갑니다.
이 죄를 다 어떡합니까?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젠 그 죄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수연이 잘 부탁드립니다....저의 죽음으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다면....

#128. 경찰서 현관입구/ 석양

초췌한 모습의 강력반장과 김형사가 현관을 나서다 하늘을 보고 멈춰 선다.

김형사 : 반장님!.... 최형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강력반장 : 김형사!.....사람을 괴물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괴물로 보여.....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그 속에 뭐가 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김형사 : 휴..... 일요일입니다.

강력반장이 먼저 발걸음을 옮기면, 김형사도 뒤를 따른다.

End Credit Start

멀리 성당의 첨탑 위로 노을이 깊어간다.
역광으로 성모마리아상 위에 앉아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하늘로 멀리 비상한다.